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산으로 간 펭귄

?-ʕ=∞

NAM JUNE PAIK ART CENTER
백남준아트센터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산으로 간 펭귄

2010.06.05–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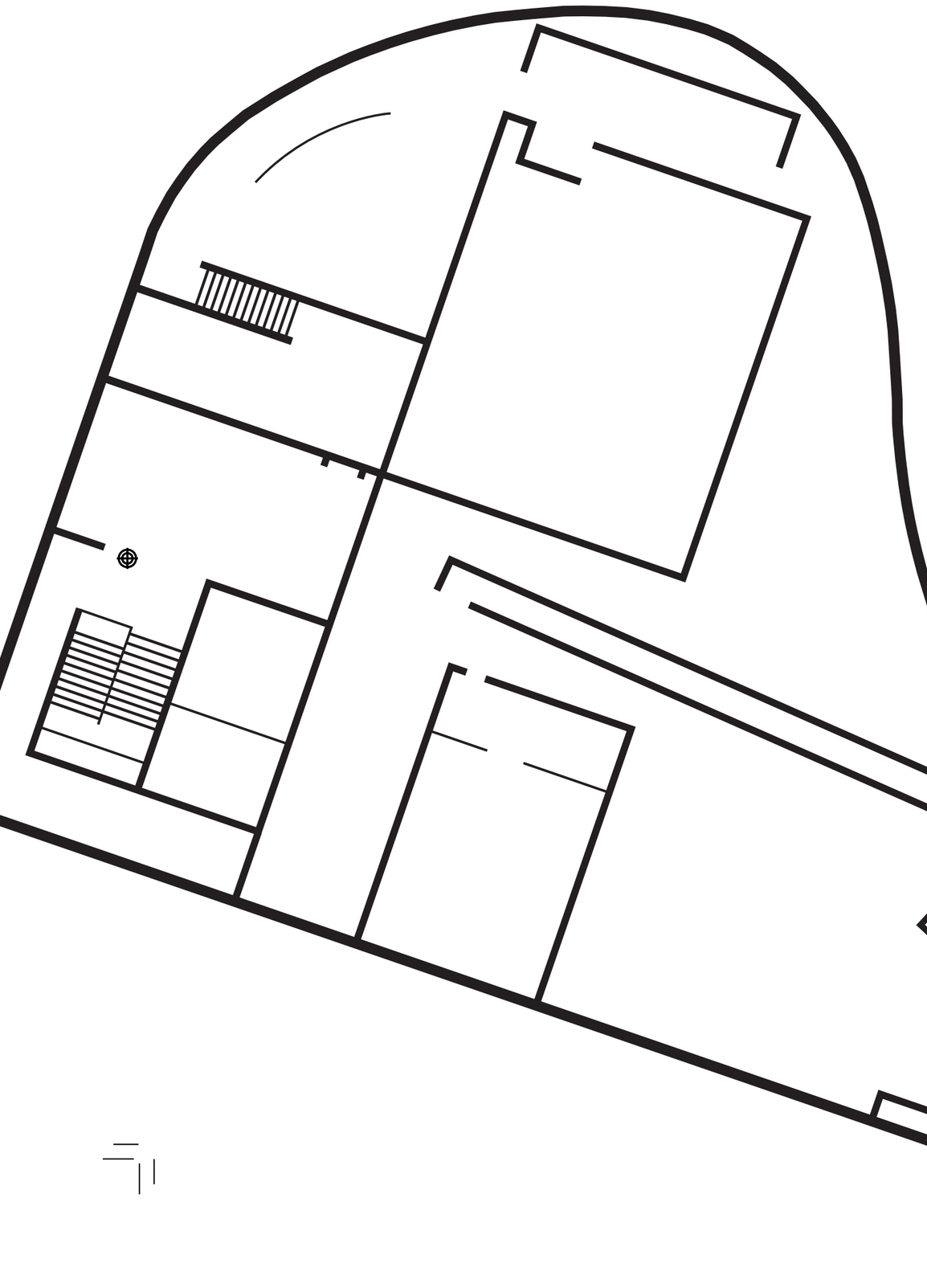
?-ʕ=∞

NAM
JUNE
PAIK
ART
CENTER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산으로 간 펭귄

?-ʕ=∞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2010.06.05–08.22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Nam June Paik Art Center
5 June 2010 - August 22

CURATOR	Tobias Berger, Sooyoung Lee, Sohye Lee
CURATORIAL SUPPORT	Chaeyoung Lee
	Claudia Pestana
	Yujean Lee
ARCHIVIST	Sangae Park
TECHNICIAN	Kijun Lee
DESIGN	TEXT

산으로 간 펭귄
백남준아트센터
2010. 6. 5 - 2010. 8.22

큐레이터	토비아스 버거, 이수영, 이소혜
전시지원	이채영,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이유진
아키비스트	박상애
테크니션	이기준
디자인	텍스트

?-?=∞
NAM JUNE PAIK ART CENTER
백남준아트센터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Contents

5 An Obscure Disaster
모호한 재난
Sooyoung Lee, 이수영

8 Down The Rabbit Hole of Nam June Paik Art Center, Following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산으로 간 펭귄을 쫓아 백남준 아트센터의 토끼 굴에 빠지다.
Sohye Lee, 이소혜

41 Opening Performance
오프닝 퍼포먼스

43 Artists CV
작가이력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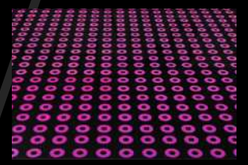
류진우 Ryu JinWoo

18

손몽주 Son Mong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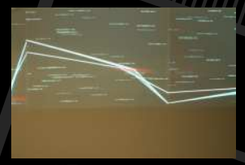
17

베모 Vaemo

27

김도균 Kim DoKyun

13

이지회 Lee Ji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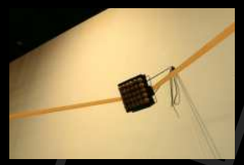
31

서중협 Seo JoongHyup

19

안마노 Ahn MaNo

12

문무왕 Moon MooWang

28

문진욱 Moon JinWook

14

허수빈 Heo SuBin

20

조은필 Cho EunPhil

32

이세욱 Sei Rhee

23

김기문 Kim KiMoon

38

풋팅 Post-Eat

39

박애정 Park AeJung

24

딴여자 Ddan Yeoja

22

문소현 Moon SoHyun

29

고민규 Koh MinKyu

25

윤돈휘 Yoon DonHui

34

송호준 Song HoJuni

15

정재철 Jeoung JaeChoul

36

박승원 Park SeungWon

35

인터게이트 Intergate

An Obscure Disaster

모호한 재난

Sooyoung Lee
이수영

01 이상한 나라의 백남준

펭귄전은 매우 다양한 레이어와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획되었다. 학예팀은 같이 모여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시작점으로 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자 우리가 반드시 겪고 극복해나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현실에서 환타지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놀이와 독특한 법칙들은 여러 영역들을 넘나들며 항상 유머러스한 상황을 즐겼던 백남준의 원리와 닮아있었다.

첫 번째 구멍

PAIK 백 -
PARTICIPATION 참여 -
PSYCHADELIC 사이키델릭 -
PATAPHYSICAL 파타피직 -
PARADOXICAL 패러독스

회의의 과정은 매우 자유롭고 우연적이고 열려있었다. 오가는 대화 가운데 앨리스에서 주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던 말놀이, 구멍, 모험 등을 놓고 백남준과 관련된 개념들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지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어느 것도 규정짓거나 미리 기대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맞아떨어지는 작가들–무지한 선배들과 스승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전국의 미술대학과 카이스트 혹은 대안의 교육 기관들이 열거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수들을 추려냈다. 학예팀 멤버들은 부산, 광주, 대전, 서울까지 교수들을 만나고,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시 모였다.

02 산으로 가는 펭귄

산으로 가는 펭귄은 우연하게 맞닥뜨려진 이미지였다. 재난의 한 가운데 있는 산으로 가는 펭귄은 내셔널 지오그라프에서 볼 수 있는 꽤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그 자체로는 위험과 재난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헤어조그의 다큐멘터리 «**세상 끝에서의 조우**»를 보면 펭귄들의 무리를 떠나 빙산을 가로질러 무작정 걷고 있는 펭귄들이 나온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기지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 수십만 마리의 펭귄 중에서 한두 마리에 지나지 않는 이 희귀한 펭귄들은, 정확한 병명을 대자면 방향감각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명이 이미 죽음을 향해 결정나버린 놈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되돌려 안전한 무리의 서식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펭귄을 20여년이나 연구했다는 박사의 말을 따르면 이 펭귄들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며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저 그들이 가는대로 놔두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산으로 가는 펭귄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수 백만분의 일의 가능성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이러한 놈들의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기막힌 우연으로 생기는 펭귄들을 전시에 풀어놓는 길은 이들에게 길을 강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 구멍

ATMOSPHERES 분위기 -
ADVENTURES 모험 -
ANXIETY 불안 -
ARCHITECTURE 건축

세 번째 구멍

DESIRE 욕망 -
DECISION 결정 -
DENIAL 부정 -
DISORIENTATION 방향감각상실 -
(DAY)DREAM 백일몽 -
DISASTER 재난

젊은 작가들에서 부터 다양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벽에 붙여놓고 학예팀의 토론은 계속되었다.
공간 제약상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수의 작가들을 추려내면서, 우리는 최대한 기존의 공모 심사와 닮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앨리스에서 추출해낸 키워드와 직관적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골라냈다. 이 학생–작가들은 처음부터 그룹 토의를 하며 연극적 상황을 의도했던 학예팀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

03 모호한 재난

세상의 모든 펭귄들에게 서서히 닥쳐오고 있던 재난이 미술관에까지 닥쳐왔다. 벽이 무너지고 기울어진 것이다. 미술관의 하얀 벽은 화이트큐브라는 별명처럼 온갖 미술관의 아우라와 권위, 절대성의 상징이다. 미술관 벽이 무너진 것으로 상징되는 재난이 어떤 것일까. 예산이 삭감되고, 인력이 줄어들고, 더 나쁘게 전시의 주제가 밖에서 강제당하거나 혹은 차라리 말 그대로 벽이 무너지거나. 혹은 더 우아하게 상업화되어가고 화이트 큐브이다 못해 표백되고 박제가 되어가고 있는 미술관 공간과 그 현상의 심각성을 언급할 수도 있겠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펭귄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조작한 것인지 외부적으로 침입한 것이지 알 수 없도록 서서히 다가오며 대체적으로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누가 적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기분 나쁜 재앙이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처럼 내부의 수장이 점점 독재로 미쳐가는 경우나 공산주의 몰락이후 냉전의 종료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이르기 까지 근세에 일어나는 일들은 확실히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랭 바디우(Anlain Badiou)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관련해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모호한 재난**»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바디우는 비교적 분명하게 재난의 상황들을 꼬집어낸다.

> “프롤레타리아나 정치가 없는 맑시즘,
> 개인적 재산을 사회적 결정의 중심에 놓는 경제주의
> 투기꾼들, 부패에 대한 좋은 인식을 재발견하는 것,
> 부자를 더 부요하게 만드는 것에만 사로잡힌 정부 :
> 여기에 문명이라는 승리의 기치 아래 우리에게
> 제시된 세계의 비전이 있다.”
> 알랭 바디우, «모호한 재난» 중

네 번째 구멍

REALITY 리얼리티 -
RABBIT 토끼 -
RESIZING 크기변화 -
RELIEF / RELEASE 안도 -
RIDDLES 말놀이

현실의 공산주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으며 이 죽은 자의 죽음이 더더욱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국가주의적 지배 장치에 반대하는 것이 모호한 재난의 주요 논점이다.[1] 바디우에 따르면 주체는 사건과 진리에 의존적이다. 즉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도, 주체도 없다.
주체는 사건과 진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건이 우연히 돌발하는 것인 만큼 주체도 우연적이다. 단토의 예술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술의 죽음은 19세기 말부터 감지되어 왔다. 예술의 죽음이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면, 그래서 이에 의존하는 진리도 주체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체는 어떠한 실체로 환원되지도 않고 존재와 등치되지도 않는다. 산으로 가는 펭귄의 존재 역시 이미 그들의 생명과 운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산으로 가는 펭귄**»에서 마주쳤던 25명의 작가들 역시 그와 같은 존재였다. 현실에 수많은 칼질을 가해 단단한 리얼리티가 무너져 내리게 하고 딱딱한 미술관 벽을 물렁물렁한 고무줄 벽이 되게 했다. 벽에 구멍을 뚫고 자신만 가지고 놀던 숨기고 싶은 장난감들이 틈새로 흘러 나오게 했다. 사운드는 기울어진 벽 아래 놓였고, 영상은 무너진 벽과 목재 파편 위에 투사되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술관 벽을 조각내어 기념품으로 팔아치웠다. 이러한 연극 앞에 관객들의 존재는 암시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며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떨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면을 들켜버릴 위험에 놓여졌다. 그들도 펭귄처럼 모호한 재난 속에 우연적인 주체를 경험했다.

다섯 번째 구멍

HALLUCINATION 환각 -
HEARING 듣기 -
HAPTIC 햅틱

1) 서용선, 〈철학을 위한 선언〉 해제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Exhibition was conceived from within multi-layered and continuously changing circumstances. The curators began brainstorming with "Alice in Wonderland" as the starting point. "Alice in Wonderland" was our given circumstances, which we had to go through and overcome. Numerous games and particular rules that one encounters as the reality and fantasy intermingle together were quite like Nam June Paik's principles, who always enjoyed humorous situations as he crossed over diverse areas. Our meetings were very free, accidental and open. In the meeting, we derived several concepts related to Nam June Paik from the major motives in Alice which were "Word play", "hole", and "adventure," and developed our ideas from them.

First hole

PAIK – PARTICIPATION –PSYCHADELIC – PATAPHYSICAL –PARADOXICAL

Second hole

ATMOSPHERE – ADVENTURES- ANXIETY – ARCHITECTURE

Third hole

DESIRE – DECISION –DENIAL – DISORIENTATION – (DAY)DREAM -DISATER

Fourth hole

REALITY - RABBIT- RESIZING – RELIEF/ RELEASE – RIDDLES

Fifth hole

HALLUCINAITON – HEARING – HAPTIC

With these in mind, we decided, however, not to determine or expect anything in advance. We started to search student artists who are just right for these concepts, hoping they would lead us, the ignorant old-timers and teachers, to the right way. We looked over the list of the art departments in universities over the country and KAIST and other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we also sorted out the professors who were available to meet with us. The curators met a number of professors in Pusan, Kwang-ju, Dae-jeon and Seoul,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and collecting student's portfolios. Then we got back together.

02 Penguins that go up the mountain

It was by accident that we encountered this image of penguins which go up the mountain. In the photograph that we saw, the penguins going up the mountain in the midst of a disaster looked grand and beautiful. In reality, however, they do not risk a danger or disaster. In «An Encounter at the End of the World», a documentary film by Werner Herzog, there are penguins which leave their group and endlessly walk across ice bergs. Sometimes they are found in some other bases a few thousand miles away from their own habitat, but they just keep walking and walking. These particular penguins, which are a few out of million, actually suffer from a disease called "loss of sense of direction." They are destined for death from their birth. There is no way, however, to retrieve them from death and to send them back to their safe habitat. According to a doctor who studied penguins for 20 years, you should never touch these penguins and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them is to let them go their way. How do these penguins that go up the mountain come about? What are they that have these rare diseases which appears one in a million? The way to set free these accidental penguins in the exhibition is to simply wait for them without forcing them to take any particular direction.

With the portfolios of young artists and diverse student artists hung on the wall, we curators continued discussions. Due to the spatial limits, we had to sort out a proper number of portfolios from them, doing our best not to resemble any of the existent art competition. We made our choices based on how well the work could set up an intuitive relationship with the keywords we extracted from Alice. These student artists wonderfully satisfied our intention to create a dramatic situation which had been our goal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group meetings.

03 Ambiguous Disaster

The disaster which was coming upon all the penguins in the world reached the art museum as well. The wall broke down and slanted. The white walls of the art museum were, like its nickname "white cube", the symbol of the museum's all sorts of aura, authority and absoluteness. What kind of disaster is symbolized by the breaking of the walls? Reduction of the budget, cutting down of the staffs, or even worse, interference of some exterior power forcing certain exhibition themes on us, or, literal breaking down of the wall. Or we could refer to how the space called art museum is fossilized more and more as a graceful and yet commercial white cube and how serious this phenomena is. Like in the case of the glaciers melting away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of the penguins losing their sense of direction, the worst cases tend to come upon us so slowly that we cannot discern whether they have been fabricated from the inside or they are intruders from outside. They are the worst kind of disasters in the sense that they blur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inside and as a result we cannot know who are our friends and who are the enemies. What has been happening around us recently clearly shows that we are in the midst of unstoppable disasters. Think about Ceauescu in Romania: the leader of a country went crazy pursuing dictatorship. Think about how the cold war ended after the breakdown of communist countries and how it brought about neoliberalism! Alain Badiou wrote a book on the fall of the communism, titled «Ambiguous Disaster». In the introduction to this book titled "Victory of democracy?," he quite succinctly points out the disastrous situations in the contemporary world.

> A "Marxism" without proletariat or politics, an economism that puts private wealth at the center of social determination, the rediscovered good conscience of the corrupt, the speculators, the financiers, the governments exclusively preoccupied with supporting the enriching of the rich: there's the vision of the world presented to us under the triumphal banner of civilization.
> **-Alain Badiou, from «Ambiguous Disaster»**

The major arguments of «Ambiguous Disaster» are 1) the communism of today has long been dead, 2) the death of this dead entity is not an event any more, and 3) the author opposes all kinds of nationalist governing system including capitalism. In other words, there is neither truth nor subject when there is no action. The subject depends on the action and the truth. Thus, it is as accidental as the action. Without referring to Danto's «At the End of Art», one can safely argue that the end of art has been detected ever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Since the death of art took place in the long gone past, the pres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no truth or subject that depends on it. In this ambiguous circumstance, the subject cannot be restored to any substance. It does not have equal value to any being. The penguins that go up the mountain were like ghosts in the sense that their life and fortune could not be guaranteed. The 25 artists whom we encountered in «Penguins that go up the mountain» exhibition were just like those penguins. They slashed with knives the walls called reality, and had them fall down. They transformed the hard museum walls into soft rubber band walls. They made a hole in the wall and let the toys which they played with and wanted to hide in a safe place ooze from the crevices. The sound was put under the slanted wall, and the images were projected onto the fallen walls and the broken pieces of wood. And finally they tore apart the museum walls and sold them off as souvenirs. Watching this drama, the audience, implicitly or forcefully, became unstable and vulnerable. They were in danger of revealing in spite of themselves what was inside their mind. They experienced, just like the penguins, being the accidental subject in an ambiguous disaster.

Down the Rabbit Hole of Nam June Paik Art Center, following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산으로 간 펭귄을 쫓아 백남준아트센터의 토끼 굴에 빠지다.

Sohye Lee
이소혜

«산으로 간 펭귄»展은 '이상하게도'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출발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시 준비과정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정처 없이 출발하여 '이상하게도' "산으로 간 펭귄"이라는 전시에 도달하였다. 때문에, 두 가지 의문이 따라온다. 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여정이 «산으로 간 펭귄»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이상한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관객의 모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Charles Lutwidge Dodgson, 필명 루이스 캐롤)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65)는 논리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프리즘과 같은 소설이다.

흥미로운 모험 소설의 형식을 띤 아동 문학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같이 일반적인 아동 문학들과 구별되는 언어적, 형식적, 구조적 특징은 바로 '낯섦 uncanny'의 적극적 도입일 것이다. 먼저, '낯섦'은 소설의 구조적 설정에서 드러난다. 소설과 극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을 이루고 있는 두 축, 즉 시간과 공간의 질서 자체가 이 소설에서는 뒤틀리고 있다. 더군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심리적 플롯 또한 그 연속성을 잃어버리기 일쑤이다. 또한 이 '낯섦'은 '소설'이라는 미디엄이 전달 매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인 언어의 전달 방식 자체, 즉 독자와 작가 간의 유일한 전달 코드이자 체계인 텍스트를 가볍게 뒤흔든다. 다만, 이 뒤흔듦은 언어 체계에 대한 총체적 도발이나 전복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유희word play로서 소설 이곳 저곳에 도사리며 스스로의 존재를 언뜻언뜻 드러낸다.

"그건 아주 길고 슬픈 이야기tale야!"
"그래, 네 꼬리tail가 긴 꼬리 건 분명해.
하지만 왜 슬픈 꼬리라고 부르는 거지?
(…)
"미안해, 네 꼬리가 다섯 번 휘어졌지?"
앨리스는 매우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야Not!"
생쥐는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꼬리에 매듭knot이 졌구나!"

이런 언어 유희는 소설 내의 의미 구조 형성에 있어 주인공 앨리스의 모험에 대한 단일한 맥락을 어지럽히고distract, 독자로 하여금 소설의 기반인 텍스트 자체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다. 언어 유희라는 작은 장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줄거리나 구조에 새로운 층위layer를 삽입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틈새'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상한 나라wonderland는 '동화 속의 나라'라는 1차적 의미 이외에도 중첩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wonder는 '동화적 판타지'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이에 대한 놀라움/낯섦'인 것이다.

전시 «산으로 간 펭귄»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등장한 이러한 낯섦의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 낯섦이 백남준아트센터가 현대 미술관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기본 조건/맥락에 대한 질문이 되길 바랬다 : **01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이에 대한 관객의 통례적 인식, 02 작품과 관객의 체험 간에 존재하는 거리, 3. 전시 만들기에 있어 큐레이터와 작가, 작가와 작가 간의 거리(혹은 암묵적 계약)**. 그리고, 이 전시는 이러한 낯섦을 위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언어 유희word play를 가져와 미술관의 언어, 즉 맥락의 유희context play로 차용하고자 했다.

01 공간의 무대화 : 깨끗한 큐브로 구성된 배경으로서, 관객의 인식 안에서 뒤로 물러서 있던 전시장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이를 일종의 무대가 되게 한다. 이 '무대' 위에서, 전시는 '보여주는 것 exhibition'이 아니라 연극이자 놀이, 즉 play가 된다. 기획전 공간으로 가는 계단을 전시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벽을 무너뜨리며, 기존의 벽을 철거하다 생긴 잔해를 그대로 전시 공간 내에서 이용한다.

02 작품–비非작품, 작품–작품의 간격 줄이기 : '이것이 작품이 맞나요?'라는 질문이 전시장에서 지킴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일 만큼, 현대 예술에서 작품은 그것이 놓인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으며, 전시장에서 관객은 끊임없이 작품을 발견하기 위해 헤매게 된다. 전시가 진정한 체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작품–비작품 간에 발생하는 모호함을 극대화시키고, 작품–작품 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충돌을 이용하여 이 둘 간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생성되도록 한다. 전시장의 모든 장치들(예를 들어 미끄럼틀, 통로, 의자 등)이 이에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작품들의 만남과 이들 간의 배치가 중요해진다.

03 작가–비非작가, 작가–작가의 간격 모호하게 하기 : 현대 예술의 구조에서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작가와 작품이 가지는 절대적 독자성independency은 그들의 영역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관객의 자유로운 정신적 참여와 해석을 차단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작가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는 전시 준비 진행 및 논의 과정에서 큐레이터나 다른 작가의 컨셉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지선 안에 위치해 있어, 원론적으로는 서로 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가의 예술적 자주성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다른 작가의 그것, 큐레이터의 논의와 만나게 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보다 증폭, 확장 시킨다.

«산으로 간 펭귄»은 이렇게 전시/미술관의 언어(공간적, 인식적, 관습적 맥락)를 변형시킴으로써 연극play적 상황을 만들어 관객과 일종의 게임play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객은 이 '이상한 백남준아트센터'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새로운 모험의 '주인공'이 된다.

펭귄을 따라 토끼 굴로 빠져라

'펭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베르너 헤어조그Werner Herzog의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 끝에서의 조우Encounter at the End of the World»의 한 장면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앨리스가 «산으로 간 펭귄»전에서 미술관 혹은 전시의 맥락을 살짝 뒤흔들어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사라졌다면, 펭귄은 이 이상한 나라에 착륙한 등장인물이다. 아니, 펭귄은 이 전시의 주인공이되, 이야기는 펭귄이 산으로 사라진 이후부터 시작된다. 펭귄이 산으로 갔기에, 주인공 펭귄은 이 전시에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산으로 간 펭귄은 이 전시의 포스터에서처럼 그림자만을 남기고 사라졌고, 이 그림자는 '펭귄이 누굴까', '펭귄은 어디 있을까', '펭귄은 왜 산으로 갔을까'라는 질문들을 남긴다. 동시에, 펭귄은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든 대체될 수 있는 무엇이 된다 : 산으로 간 펭귄은 산으로 떠난 도시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 삭막한 산으로의 모험을 시도하는 작가, 산으로 내몰린 백남준아트센터와 한국 예술계, 심지어 산으로 간 전시일 수 있다. 그리고, 회중시계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토끼를 쫓아 달려가는 앨리스와 같이, 관객은 산으로 간 펭귄을 쫓아 전시장으로 들어간다. 즉, 펭귄은 전시의 '답'이나 '주제'가 아니라, 의문과 상상력을 도출하는 '장치'로 등장한다.

> 그 다음 순간 앨리스는 어떻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곧장 토끼 뒤를 따라 내려갔다.
> 그 토끼 굴은 터널처럼 쭉 뻗어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꺼져 있었으므로, 앨리스는 미처 멈출 생각을 못 했고, 어느새 한없이 깊어 보이는 굴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 그 굴이 매우 깊었는지, 아니면 앨리스가 매우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앨리스는 여유있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해했다.
> (…)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산으로 간 펭귄»은 '산으로 사라져 버린 펭귄'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고서 여행을 시작하는 관객들을 '토끼 굴'로 밀어 넣는다. 여기서의 토끼 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착안한 일종의 시각적, 개념적 장치이다. 안마노의 «Tram 14. Muttenz», 김도균의 «sf. Sel–11»가 토끼 굴을 시각적으로 암시한다면, 전시 초입부에 설치된 은색 미끄럼틀은 육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끼 굴을 재현하였고, 김지회의 «과숙체주»는 토끼 굴로의 여행의 시발점을 알린다.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끼 굴에 대한 것이다 : 이 전시에서 토끼 굴은 어떤 의미로 등장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 굴은 매우 중요한 장치로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이상하고 낯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종이자, 앨리스의 일상이나 관습과의 단절을 예고한다. 소녀가 토끼 굴로 빠지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함을 생각하면, 앨리스가 빠진 토끼 굴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들이 과연 진짜로 벌어졌던 일일까를 의심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다가올 혼돈이나 혼란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이나 관습의 규칙과 단절함으로써 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으로 간 펭귄»의 토끼 굴은 관객에게 '문' 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여기서 '문'은 관객이 익숙한 일상의 질서들과 단절하는 매순간이다. '토끼 굴'은 전시장 밖에서부터 날아들어오며 웃고 있는 푸우 비행기,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는 옷걸이, 폭격을 맞은 듯한 전시장 한 벽, 전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우라늄 원석, 지금 서 있는 곳이 공사장인지 전시장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공사판 로봇 수신호기, 하늘로부터 늘어져 내린 전화기 등에게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체험을 증폭시키기 위해 장치되었다.

두 번째, 미술사적 의미에서의 창window의 개념을 넘어서는 문door이다. 예술이 미메시스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전시장 안에서 관객이 의지하는 체험의 틀이나 태도는 아직 알베르티의 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관객이 창 밖을 바라보듯 작품을 관조하거나 작품에서 재현representation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을 넘어섬으로써 보다 실재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산으로 간 펭귄»은 관찰이나 분석이 아닌 체험과 혼돈의 전시이길 바란다.

관객은 마지막 김기문의 작품에 이르러 다시 토끼 굴에서 현실로 넘어온다. 김기문의 작품 «R.I.P»는 전시 «산으로 간 펭귄»가 맞은 재난이 사실은 연극play이었으며 놀이play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치 앨리스가 소설의 마지막에서 한 다음의 말과 같이. "아, 나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

> 일반적으로 예술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1. 창조자(적극적인 발신인) 2. 시청자(수동적인 수신자) 3. 비평가들(판정자나 방송국)
> 위의 구분을 통해 허영, 유파, 스타일, 사건의 줄거리, 조작 등… 예술세계와 예술 오염의 복잡한 우연성이 드러난다. 소위 일류 예술가 혹은 이류 음악가나 무명 시인 등… 그들 사이의 모호한 구분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 반면, 마약의 경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한다. 마리화나나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는 소년은 창조자며, 시청자며, 비평가이다. (…)
> 마약 사용의 이 해괴한 '존재론'을 조금 덜 '해롭게', 마약중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더 '올바른' 예술적 표현방법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 – 백남준, "비디오 영상합성기 플러스", 〈래디컬 소프트웨어 2호〉, 1970

"Wondrously,"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started from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by Lewis Carroll. More precisely,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is exhibition began from the novel Alice In Wonderland without any particular direction and then "wondrously" it lead us to the exhibition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Thus, two questions are to be answered here : "Why Alice in Wonderland?" and "How did the destiny of this journey end in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Audience's Adventures in Wonder-Nam June Paik Art Center

Alice In Wonderland (1865) was written by mathematician and logician Charles Lutwidge Dodgson (known as Lewis Carroll). This novel seems like a prism which can be interpreted from various points of view including logics, psychology, psychoanalysis, philosophy, and sociology.

The linguistic, form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which distinguish Alice in Wonderland, although it is structured as an adventure novel for children, from other children's literature result from its engaging introduction of what is "uncanny" into the story. Above all, the way the novel is structured is "uncanny." Time and space, the two axes on which a novel or a drama is built, are twisted and disordinarily manipulated in this novel. Moreover, the so-called psychological plot, which Aristotle emphasized, easily loses its continuity.

Furthermore, this "uncanny" ever so lightly shakes the very method of linguistic communication, which is the only foundation on which a "novel" itself can establish as a medium. In other words, it disturbs the text, that is, the only communicative code system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Even so, however, this shaking or disturbing does not look like a form of overall challenge or subversion. It makes its appearances in a word play, disclosing its existence suddenly and in flashes, here and there in the novel.

> "Mine is a long and a sad tale!" said the Mouse, turning to Alice and sighing.
> "It is a long tail certainly," said Alice, looking down with wonder at the Mouse's tail: "but why do you call it sad?" (...)
> "I beg your pardon," said Alice very humbly: "you had got to the fifth bend, I think?"
> "I had NOT!" cried the mouse, sharply and very angrily.
> "A knot!" said Alice, always ready to make herself useful, and looking anxiously about her.

This kind of word play distracts the linear story of Alice's adventure in the formulation of the structure of meaning in the play, and makes the reader be aware of the being of "text" itself, the very foundation of the novel. This little device, word play, endows new layers to the story and the structure of Alice In Wonderland, functioning as a crevice through which the reader transports to another dimension.

As a result, Wonderland comes to have another layer of meaning than its primary one which is "a land existing in a fairy tale." The double meaning of "wonder" here is (1) "fantasy-like in a fairy tale" and (2) "an unexpected situation and the surprise/strangeness that it offers."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started from the methodology of "uncanny" introduced in Alice In Wonderland, hoping it would serve as challenging questions about the three fundamental conditions/contexts which Nam June Paik Art Center, as a contemporary art museum, can hardly escape from : **(1) The space as an art museum and the audience's general perception about it, (2) The distance between artwork and audience's experience of it, (3) The distance (or the implied contract) between curator and artist, between artist and artist in the making of an exhibition.** And, this exhibition, for the sake of this strangeness, intends to create a language of "museum," that is, "context play," drawing from the word play in Alice In Wonderland,.

무제 Untitled (2009), 박애정

01 Using the space as a theatrical stage: we aggressively changed the exhibition space - white cubes that serve as a background, which is usually pushed back somewhere in the conscious of the audience- into a kind of stage. On this "stage," an exhibition is not any more something only to be shown but a theatre and a play. We transformed the stairway to the exhibition space into a display room; we broke down the walls, using their remains as a part of the exhibition.

02 Reducing the distance between artwork and non-artwork, between artwork and artwork : In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he question most often asked is "Is this an artwork or not?" Such is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within which an artwork is displayed. An audience is continually challenged to find art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In order for an exhibition to function as a space of true experiences, we maximize th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between what is an artwork and what is not. We design the exhibition so that new stories are generated from the invisible relationship/ clash between artworks. All devices in the exhibition (f.i., slides, corridors, chairs, etc.) become part of this effect, therefore, the encounters between different artworks and the way they are arranged become important.

03 Obscuring the distance between artist and non-artist, and between artist and artist : the absolute independency of an artist and her work which has become sacred precincts in the structure of modern art protects the artist's space at times, but it also blocks the audience's free and spiritual participa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meanwhile, an artist's artistic identity cannot be negotiated since it is an area a curator or any other artists cannot transgress in the preparation process of an exhibition. So we aim to break the hard surface called an artist's artistic autonomy. Instead we amplify and expand the meaning of an artwork by making it meet with those of other artists, and the curator's interpretation of it.

Thus,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intends to transform the language of an exhibition/art museum (the spatial, perceptual and customary contexts) into a play situation so that we can play with the audience. The audience, on the moment they step into this "Wonder-Nam June Paik Art Center," becomes the "hero" in a new adventure story.

Down The Rabbit Hole, Following The Penguin

The sudden appearance of a "penguin" happened when we found a scene from Encounter At The End Of The World, a documentary film by Werner Herzog. If Alice ever so lightly stirs upside down the context of an art museum or an exhibition, and transformed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into a "wonderland," the penguin is the character who has landed in this wonderland. Or rather, the penguin is the hero of this exhibition, and the story starts from right after the penguin has disappeared into the mountain. Since the penguin has gone to the mountain, the hero of this exhibition ceases to exist the moment the exhibition begins to exist. What the penguin that has gone to the mountain left behind is its shadow like the exhibition posters, and some questions like "Who is this penguin?" "Where did the penguin disappear?" "Why did the penguin go to the mountain?" Simultaneously, the penguin can be replaced with anything here: it can be a city man who has gone to the mountain, a reckless attempt to conquer a mountain, an artist who dares an adventure to a desolate mountain, Nam June Paik Art Center or Korean art which has been pushed to a far back corner of a mountain, or an exhibition that has gone up the mountain. The audience, like Alice running after the rabbit with a pocket watch, enters the exhibition, following the penguin

that has gone to the mountain. In other words, the penguin is not the answer or the theme of the exhibition, but a device that provokes questions and imaginations.

> In another moment down went Alice after it, never once considering how in the world she was to get out again.
> The rabbit-hole went straight on like a tunnel for some way, and then dipped suddenly down, so suddenly that Alice had not a moment to think about stopping herself before she found herself falling down a very deep well.
> Either the well was very deep, or she fell very slowly, for she had plenty of time as she went down to look about her and to wonder what was going to happen next. (...) Down, down, down. Would the fall NEVER come to end!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pushes the audience into a "rabbit hole" as they start their journey, curious about the 'penguins that have disappeared to the mountain.' Here, the rabbit hole is a kind of visual and conceptual device we drew from Alice In Wonderland. If Ahn Mano's Tram 14. Muttenz and Kim Dokyun's sf. Sel-11 visually imply the rabbit hole, the silver slide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room represents a rabbit hole that can be physically experienced, while Lee Jihoi's The Gherkin's Launch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into a rabbit hole. The question here is about the rabbit hole itself. What does it mean in this exhibition, and what part does it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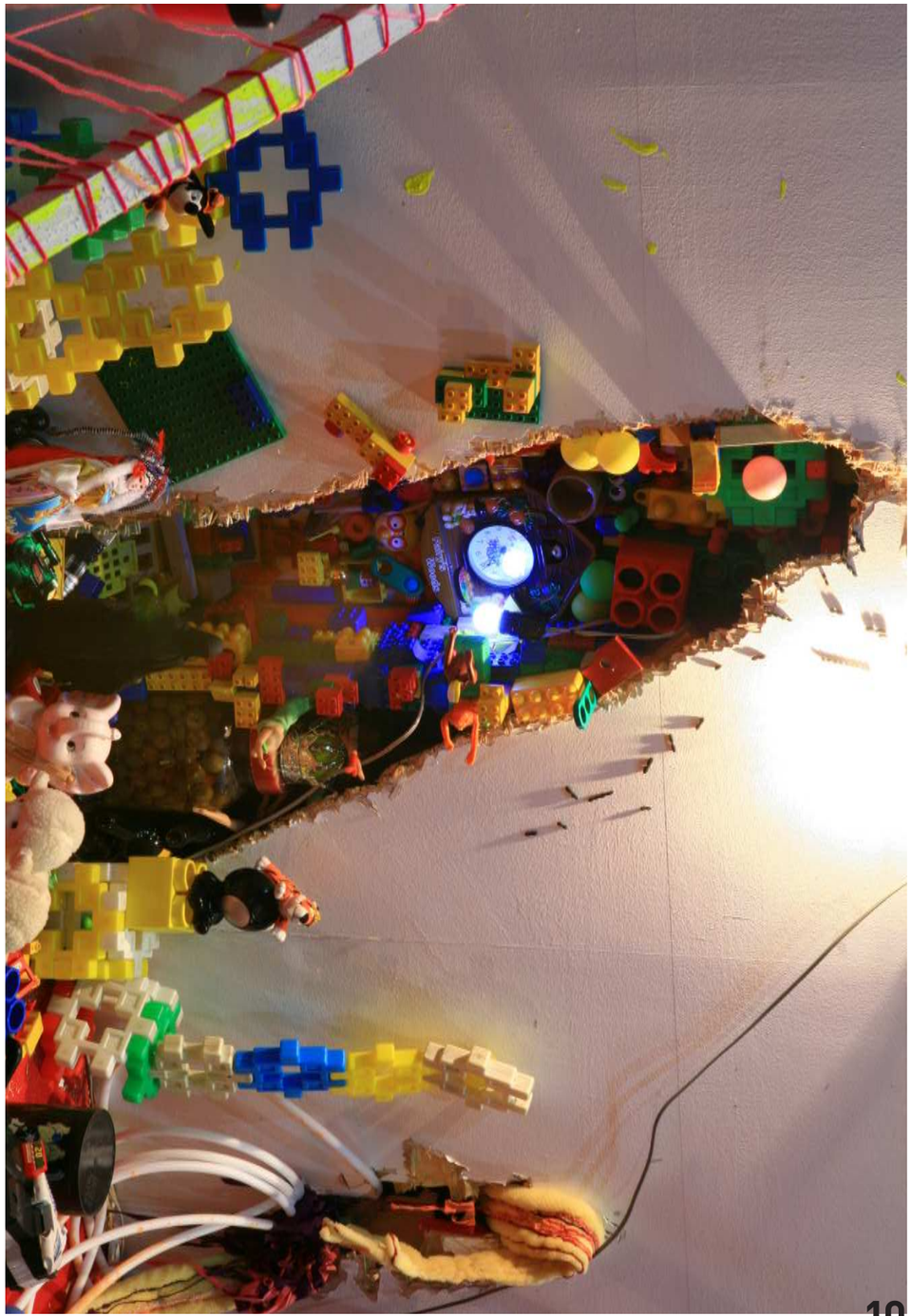
The rabbit hole in Alice In Wonderland is a critical device in the novel. It is a starting signal for everything strange and uncanny mentioned above. It also indicates that the reader will be alienated from her everyday lives and social customs. Considering that it is already impossible for a girl to fall into a rabbit hole, the rabbit hole makes the reader doubt whether the events to come are all true happenings. Through this doubt, it also serves to justify(?) the chaos and confusions soon to come about in the story. In other words, the rabbit hole makes the rules of everyday lives and social customs meaningless by rejecting them.

In this sense, the rabbit hole in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functions as "a "door" for the audience. First, the "door" here means each moment when the audience departs from the orders of everyday life they are used to. The rabbit hole justifies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Pooh airplane which flies into the exhibition room from outside laughing, the cloth hanger which keeps knocking on the window, the exhibition room wall which looks as if bombarded, an uranium exposing itself in the exhibition room, a signaling robot in a construction site which confuses the audience whether she is in an exhibition room or on a construction site, and a telephone hanging from the sky. The rabbit hole gives meaning to all these, amplifying the experiences of the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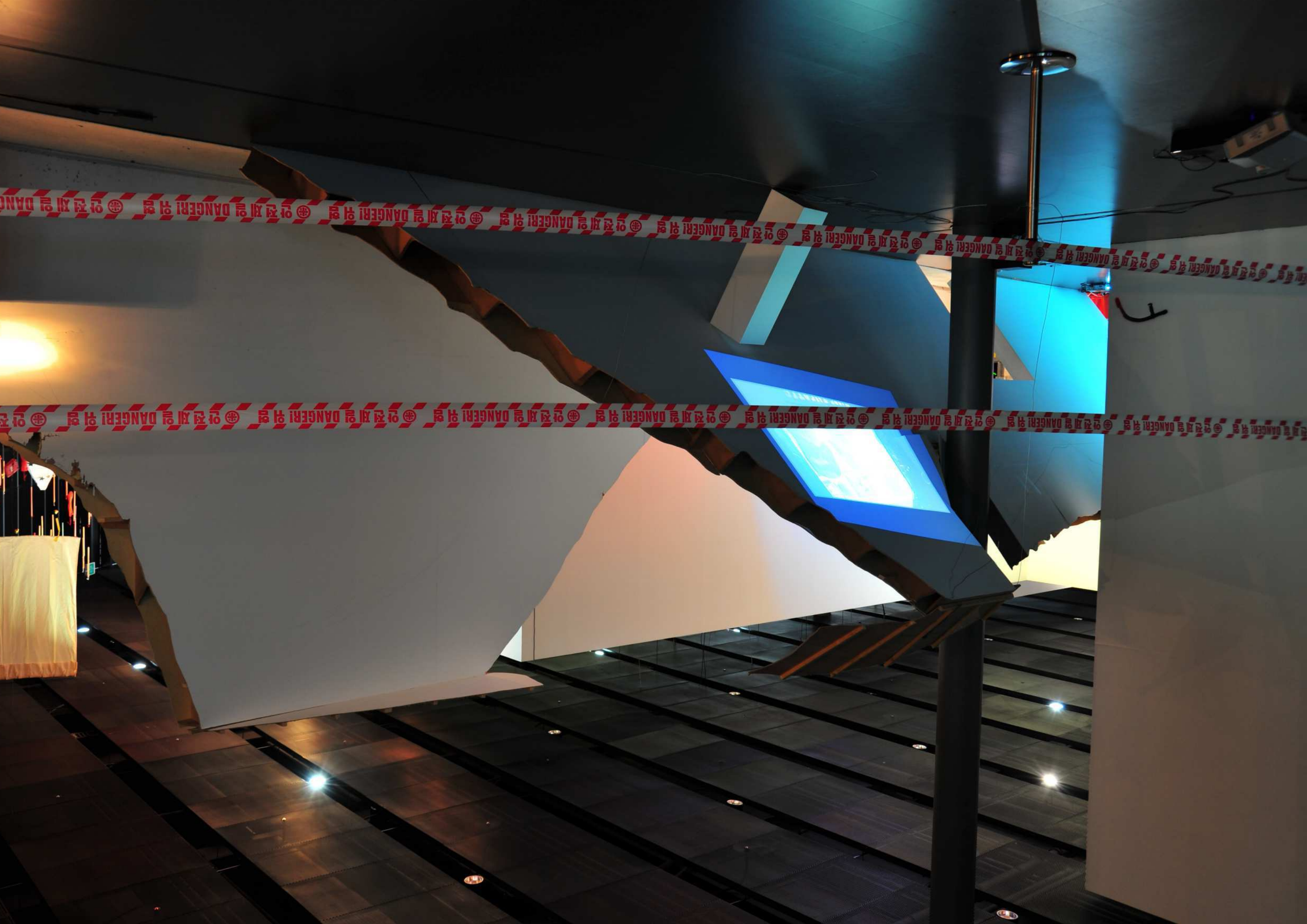
Second, the rabbit hole is a door moving beyond the concept of a window in terms of art history. It has been long since art escaped from the bounds of mimesis. It seems, however, that the frame or attitude of experience the audience depends on in an exhibition is still tied to Alberti's window. The rabbit hole is there for the audience to step over the door and to have more substantial experiences, instead of watching an artwork as if looking outside the window or looking for the debris of representation. We hope that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is an exhibition of experience and chaos, not of observation or analysis.

Through Kim Kimoon's work, which is the last piece in the exhibition, the audience returns from the rabbit hole to the reality. Kim Kimoon's R.I.P reminds the audience of that fact that the disaster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went through was just a play – a theatre and a game. Just like Alice says in the last part of the novel; "Oh, I've had such a curious dream!"

> Generally speaking art consists of three different parties. (1) Creator (active transmitter); (2) Audience (passive receiver); (3) Critics (judge or carrier-band).
> Through this discrepancy, all the complicated contingencies in the art world, or art-pollution, such as vanity, school, style, intrigue, manipulation etc. come up to the scene. The dubious distinction of so-said First Class artist or second rate musician or minor poet etc., is also a result of this discrepancy.
> But in the drug experience, all three parties are united into one. A kid who smokes a joint or so is at the same time creator, audience and critic. (...)
> Can we transplant this strange "ontology" of drug experience to "safer" and more "authentic" art medium, without transplanting the inherent danger of drug overdose???
> - Nam June Paik, "Video Synthesizer Plus", Radical Software, no 2, 1970



신경성의 장난감 Neurogenic Plaything (2010)


DANGER! 위험

01 Neurogenic Plaything

MOON MOOWANG

문무왕, 신경성의 장난감

'Neurogenic Plaything' is constructed by the devices and rules among the objects, the sounds and the texts which are collaged in a three dimensional space. These rules are the means with which to communicate the human psychology and behaviors about depressions, love, death drive and so forth. The audience will meet a complex and insecure psychological space as they explore the surreal stage of 'Neurogenic Plaything' I hope that the bareness of this work will touch and talk to the inner space in each of us. –Artist Note–

신경성의 장난감은 3차원 공간속에 콜라주 된 오브제와 사운드, 텍스트 사이의 장치와 법칙들로 구성된다. 이 법칙들은 조울증, 사랑과 죽음의 충동 등에 대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관객들은 신경성의 장난감의 비현실적인 무대 속을 탐험하며,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심리공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들의 솔직함이 우리들 각자의 내적 공간을 두드리고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 –작가 노트 중–

신경성의 장난감 Neurogenic Plaything (2010)

02 The Gherkin's Launch

1min 49sec (2010)

It is a short film that depicts a scene of London's conspicuous landmark, the 30 St. Mary Axe building's outer space trip, driving toward a dramatic scene of the buildings transformation into a space vehicle. -Artist Note-

과숙체주 瓜熟蒂捉
런던의 눈에띄는 랜드마크, 30 St. Mary Axe 건물이 우주여행을 떠난다. 오이모양의 건축물이 우주선으로 변형되는 초단편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작가 노트 중–

LEE JIHOI

이지회, 과숙체주 瓜熟蒂捉
슈팅스타
그리니치 자오선 결투

Shooting Star

2min 38sec (2008)

It is a short film starring professional actor Juhoi Lee.
The film is an elegy for a building before its demolition, suggesting a transformation of its metal gothic apex into a spacecraft. -Artist Note-

슈팅스타
배우 이주회 출현의 초단편스릴러로, 철거직전의 건물에 대한 애가이다. 철재의 고딕탑(gothic apex)이미지의 비행물체로 변함을 암시한다.
–작가 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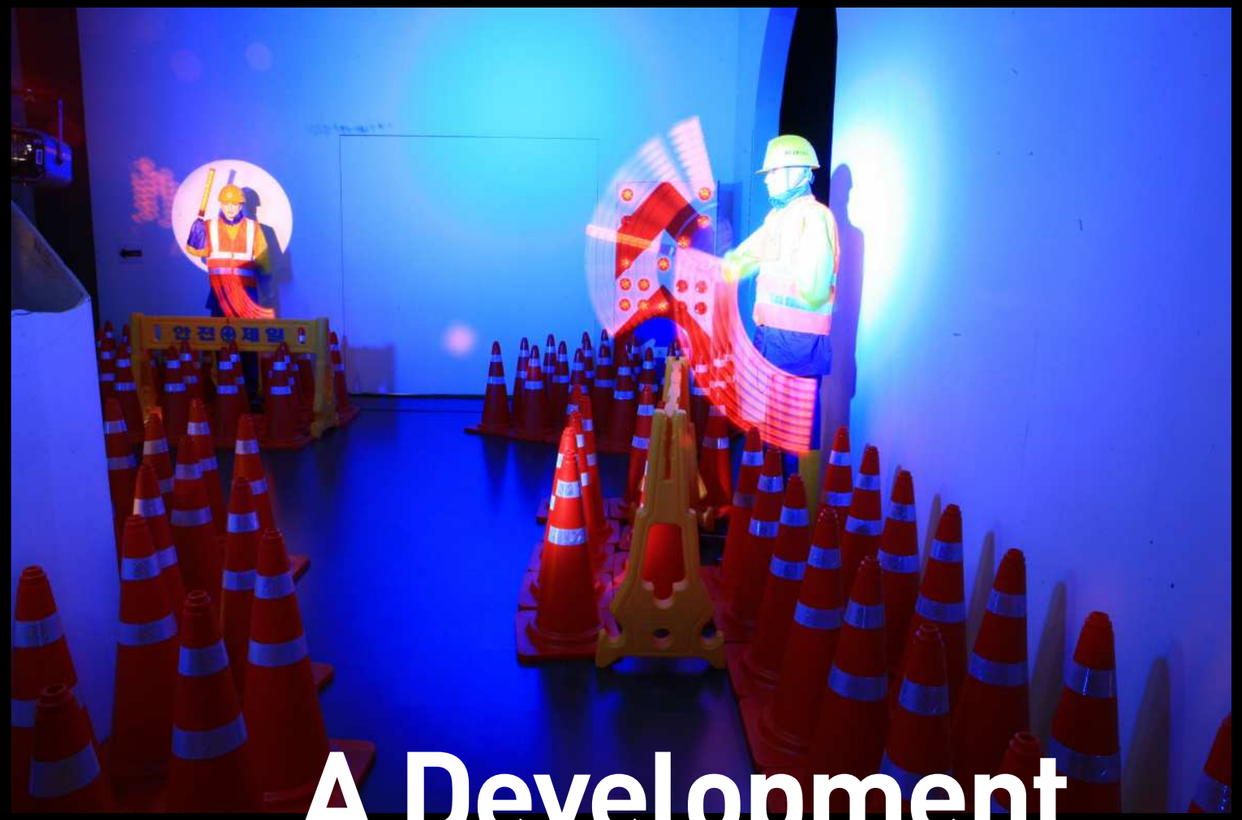
Meridian Duel at Greenwich Observatory

49sec (2010)

It is a documentation of a laser beam sobotage, interfering the 'zero longitude' of the global time at the Greenwich Observatory, London. -Artist Note-

그리니치 자오선 결투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벌어지는 사보타주, 지구시간의 경도가 시작되는 레이저빔을 향한 방해 행위를 다룬다. –작가 노트 중–

03



A Development Garden

개발동산 A Development Garden (2010)

HEO SUBIN

허수빈, 개발동산

In a dark space, as you look in the direction of the blinking arrows among the commodities of the Road and Construction department which have grown up like grasses, you'll find a mannequin under splendid lights. It is waving at you as if he is happy to see you, though he doesn't fit in this strange place. Brilliant but wretched, he is talking to us. -Artist Note-

으슥한 공간, 들풀처럼 자라난 도로공사 물품사이로 점멸하는 화살표 방향을 바라다보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서 있는 마네킹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지금 반갑게 손을 흔들지만 이런 낯선장소에 놓인 낯선 물체들처럼 어울리지않는 모습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초라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 노트 중–

04

실크로드 프로젝트 2010–2 Silk Road Project 2010-2 (2010)

Silk Road Project 2010-2

JEOUNG JAECHOUL

정재철, 실크로드 프로젝트 2010–2

Silk Road Project follows a long journey from Seoul to London, England. This project started in 2004 and is still continuing now. The first sequence covered from Seoul to China, Pakistan, India and Nepal. In this work, which is a part of the exhibition section of the project, a copy of the sun screen as an example of the usages by the local people, the videos of the work process, and the folk music of the local people will be installed, harmonizing with each other. The last part of the project will be done in Istanbul, Turkey in 2010. -Artist Note-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서울에서부터 영국 런던에 이르는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폐현수막이 여행현장에서 현지인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일어나는 여러 현상들과 문화적 혼성과 전이의 사례들을 확인, 기록하고 재해석 해보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번 작업은 프로젝트 구성 중 전시과정의 일부로서, 현지인들의 사용례의 하나인 햇빛가리개들의 카피본과 작업진행의 기록영상 그리고 현지의 민속음악이 한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도록 설치된다. 2010년엔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구간을 작업할 예정이다. –작가 노트 중–

05 Spotlight

스포트라이트 Spotligh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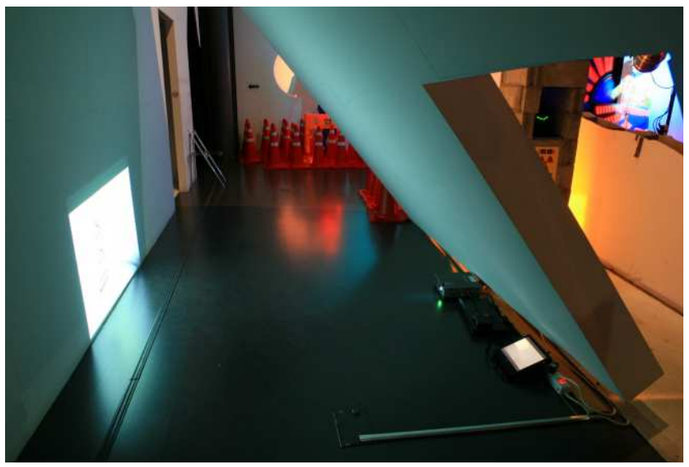
베모, 스포트라이트
어두운 곳으로
군중심리

VAEMO

The scene is dark. I put on light to find anything that is moving or making sound. Human disaster is more dangerous and closer than any natural disasters. -Artist Note-

스포트라이트
현장이 어둡다.
움직이거나 소리 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빛을 비춘다.
인간에게 더 가깝고 위협적인 재난은
자연재난(재해災害)보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재난(인재人災)이다. -작가노트 중-

To the Dark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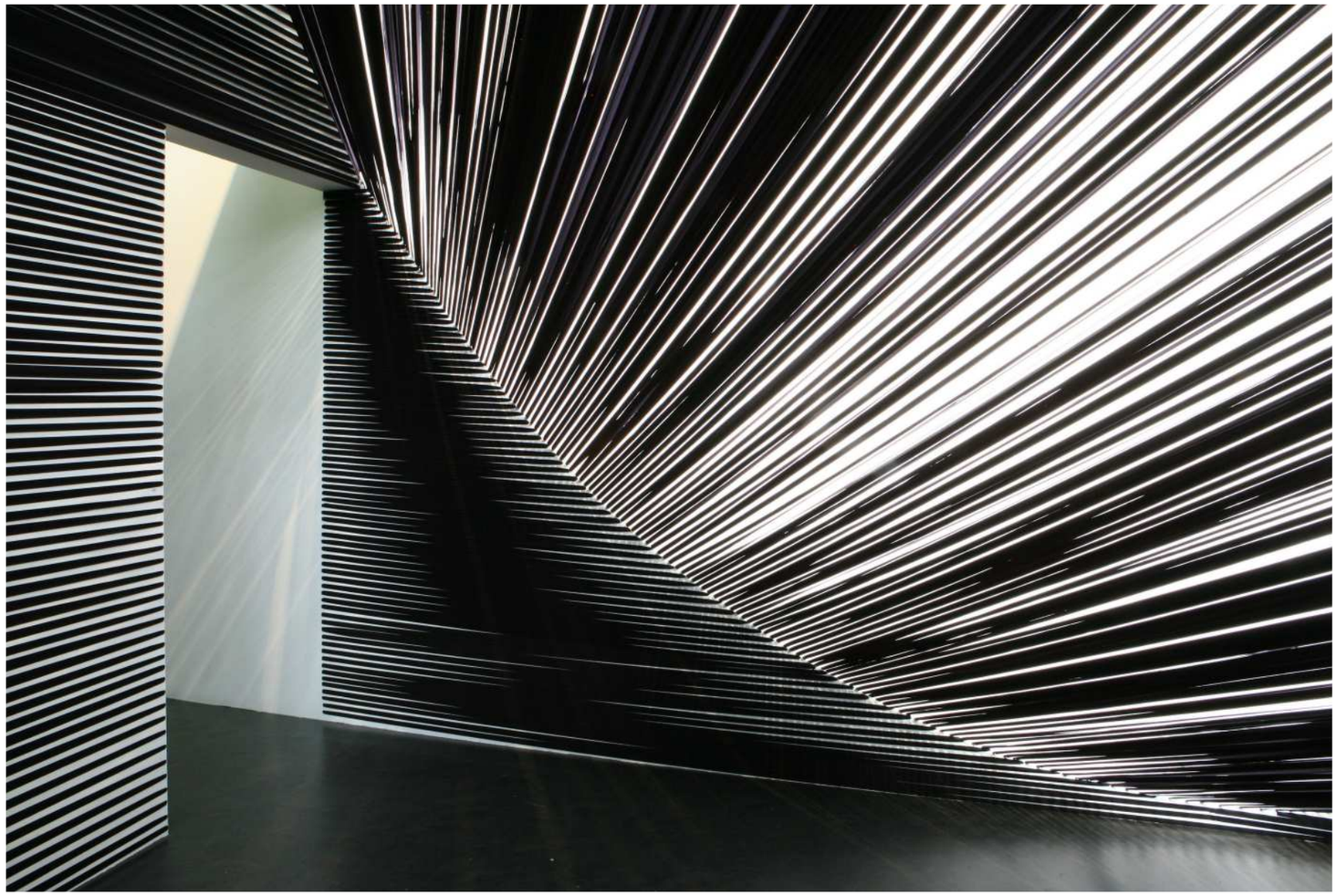
어두운 곳으로 To the dark side (2008)

Mob Psychology

군중심리 Mob psychology (2008)

06

The Animals were Gone



사라진 동물들 The animalls were gone (2008)

SON MONGJOO

손몽주, 사라진 동물들

The equivocalness of the place between a disappeared space and a newly made space is what describes best my space drawing installation. The original place seen through numerous lines is exposed through the uncountable crevices, seemingly implying something. The flexible walls suggested by the soft lines and the movements unite my space drawing and the audience, uncomfortably yet attractively. -Artist Note-

사라진 공간과 새로이 생성된 공간 중간 상태의 모호함이 바로 나의 공간 드로잉 설치이다. 수많은 선들 사이로 보이는 원래의 장소는 수많은 틈 사이로 노출되며 그 무엇을 짐작케 하고, 부드러운 선들에 의해 제시된 유연한 벽과 동선은 불편한 듯 유혹하듯 부드럽게 나의 공간드로잉과 관람객을 합일시킨다. –작가노트 중–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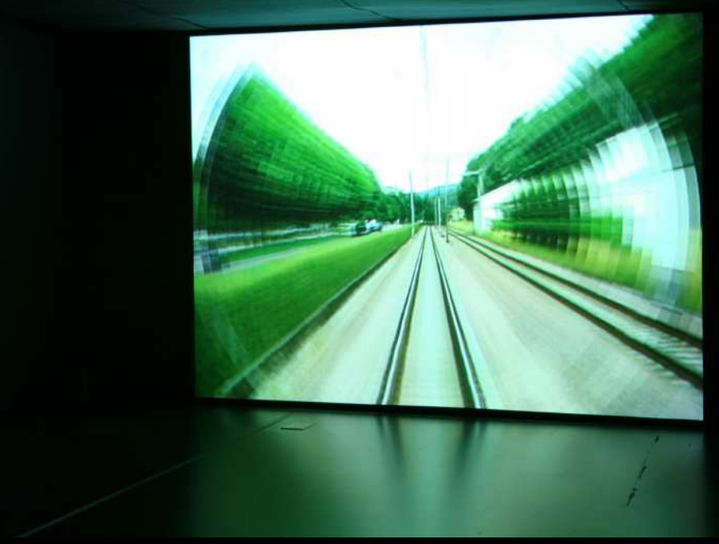
Tram 14, Muttenz

AHN MANO

안마노, Tram 14, Muttenz

The journey through the distorted time. The cutting through the solid world view.
-Artist Note-

뒤틀린 시간 속을 거니는 여정.
고체적 세계관에 가한 칼질
–작가 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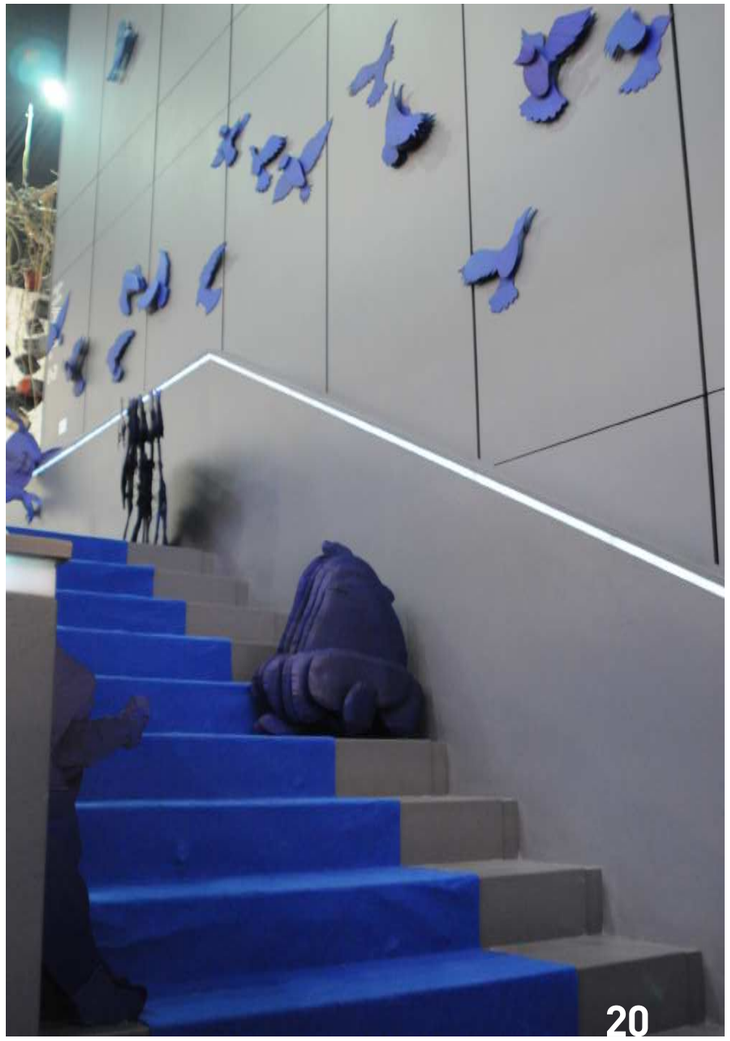
Tram 14, Muttenz, 7min 4sec (2008)

08

조은필, Mad Blue Carpet

‘Neurogenic Plaything’ is constructed by the devices and rules among the objects, the sounds and the texts which are collaged in a three dimensional space. These rules are the means with which to communicate the human psychology and behaviors about depressions, love, death drive and so forth. The audience will meet a complex and insecure psychological space as they explore the surreal stage of ‘Neurogenic Plaything’ I hope that the bareness of this work will touch and talk to the inner space in each of us.
‘Neurogenic Plaything’ is constructed by the devices and rules among the objects, the sounds and the texts which are collaged in a three dimensional space. These rules are the means with which to communicate the human psychology and behaviors about depressions, love, death drive and so forth. The audience will meet a complex and insecure psychological space as they explore the surreal stage of ‘Neurogenic Plaything’ I hope that the bareness of this work will touch and talk to the inner space in each of us.

-Artist Note-



블루는 어린시절부터, 지금껏 내가 집착하리만큼 가장 좋아하는 색, 최고의 색이다. 하지만 색채심리학에서의 고요함, 신성함 ,진실, 희망, 젊음 등을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루보다는 훨씬 더 진하고 강한 블루. 그 의미는 광기이다. 일상이 되어버린 블루공간은 나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작업들은 대부분 파랗게 칠해져 있는데 파랗지 않은 사물을 파랗게 칠하는 행위는 내가 기억하고 경험한 부분을 기억해내는 행위이며 지나간 시간들의 감성과 스토리의 재현이고 나 자신만의 영역확장이라고 하겠다. 형태와 색이 가진 물질의 힘이 극대화되고 과정과 스토리는 배재되어있는 미니멀 아트와는 상반되는 경우이다. 작업의 형태 또한 대부분의 작업들이 평명을 입체로 입체를 평면으로(입체적인 인형으로 만들어진 공을 바닥에 굴려서 평면의 페인팅을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혹은 파랗게 칠한 크기가 다른 평면의 여러개의 골판지를 층층히 붙여서 입체의 동물들을 만드는작업) 파랗기만 한 사물이 하나로 놓여져 있기보다 여러 개로 붙어있거나 놓여져 있는데 복수의 사물들이 놓여져 있음으로 더 보여지고 더 강해보이는 색과 함께 집착하고 오버스러워 보이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평면적 특징이 강한 색채가 입체적인 모형이나 오브제에 칠하므로써 그것들이 가진 물성을 전이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작가 노트 중–

Mad Blue Carpet (2009)

Mad Blue Carpet

CHO EUNPHIL

09 Make it Vanish..... Van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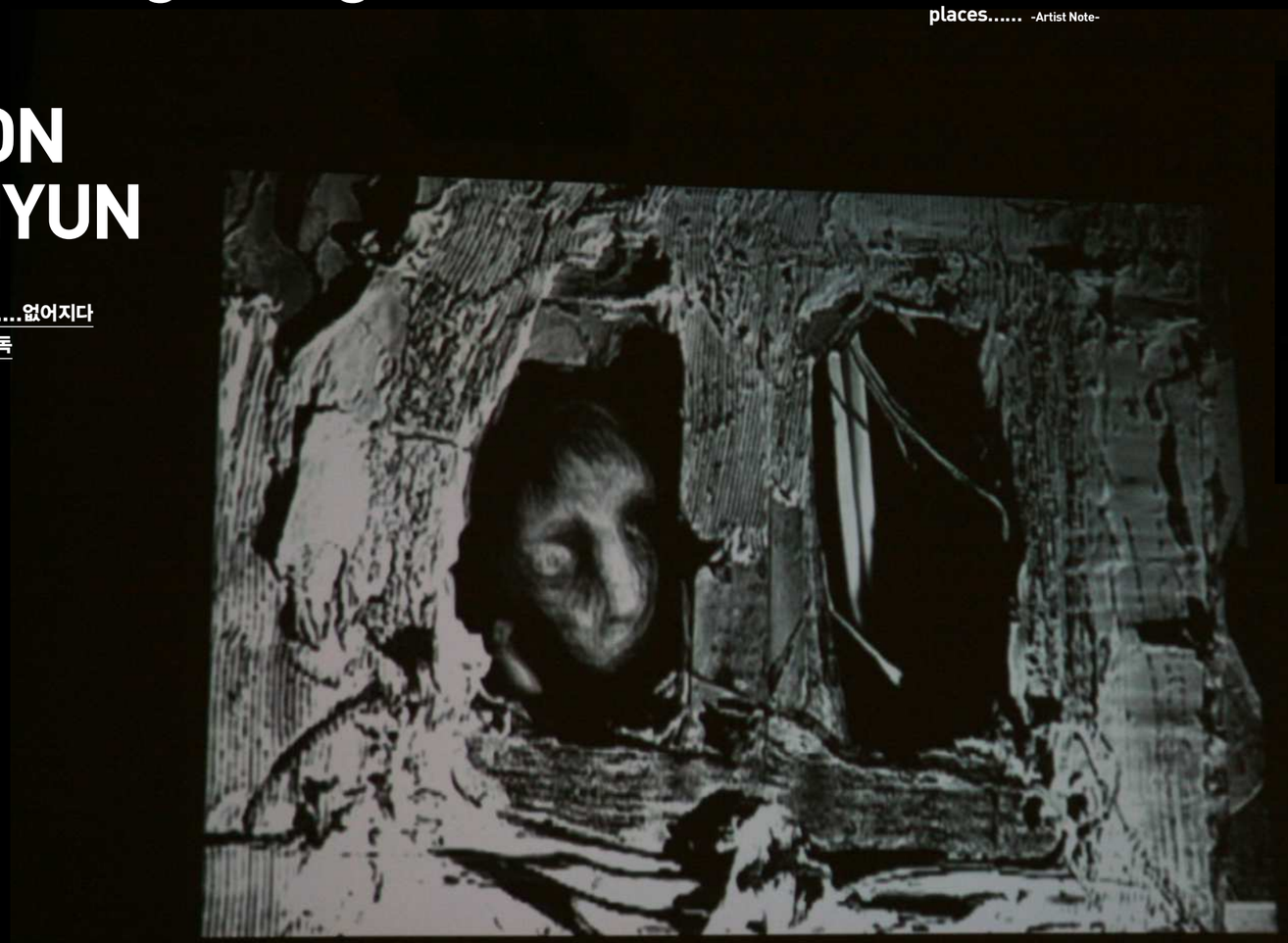
Poisoning of Light

MOON SOHYUN

문소현, 없애다.....없어지다
빛의 중독

This is a story about a man with a wound. He wants to get rid of the wound on the tip of his finger as quickly as possible. So he chooses to cut his wound off his finger. The result is that the original wound is gone completely, but a new and bigger one replaces it. Then he removes the new wound again. The wounds that disappeared..... and the new wounds that appear in their places..... -Artist Note-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관한 이야기다. 남자는 손끝에 상처가 생긴 상처를 빠르게 없애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칼로 잘라 내버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상처를 잘라낸 결과 원래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생겨버린다. 그러자 그는 새로운 상처 또한 제거한다. 없어진 상처들……. 그리고 다시 생겨버리는 또 다른 상처들…….
–작가 노트 중–



없애다.....없어지다 Make it Vanish.....Vanish, 6min 31sec (2009)

10 R.I.P

KIM KIMOON

김기문, R.I.P

In the disaster field where even penguins have left, the most powerful life force is business. Various actions done under the name of business is both the reality and the phenomena which the global environment and the exhibition space embrace.
The Souvenir Shop on the second floor of Nam Jun Paik Art Center which is already a disaster field is a process of and a space for remembering, honoring and idolizing in part the shattered pieces. -Artist Note-

*The souvenirs will be sold on the spot during the exhibition.
The earnings will be donated to the penguin protection organization.
If it turns out impossible, we will donate the money to
an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 or environmental organization.

펭귄도 떠나버린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그 현장에 틈입한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많은 행위들은 지구 환경과 전시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현실이자 현상일 것이다. 이미 재난현장이 되어버린 백남준아트센터 2층의 기념품숍은 그 파편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일정부분 우상화하는 과정이자 장(場)이다. –작가 노트 중–

*기념품들은 전시기간 내 실제 현장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판매수익은 1차적으로는 펭귄보호단체에 기부하며, 불가할 시 동물/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알.아이.피 R.I.P (2010)

11

Joke that spent a lot of Time and Money

DDAN YEO JA

딴여자,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농담

Fortunately, thanks to the theory of the Darwian doctor whom I consulted to treat my sunlight allergy, I was able to prove that my sweet sugar is good for health. Thanks to the theory of the Darwian doctor whom I consulted to treat my sunlight
allergy I was able to prove that what is good for your body is naturally sweet.

His prescription was;
Three times a day, after meal, for thirty minutes, have sex.
Three times a day, after meal, for thirty minutes, eat sweet things.
I am a woman good for your body.
Don't cry even when you feel I'm too hot.
Don't spit me out even when you feel I'm too bitter.
I'm a woman good for your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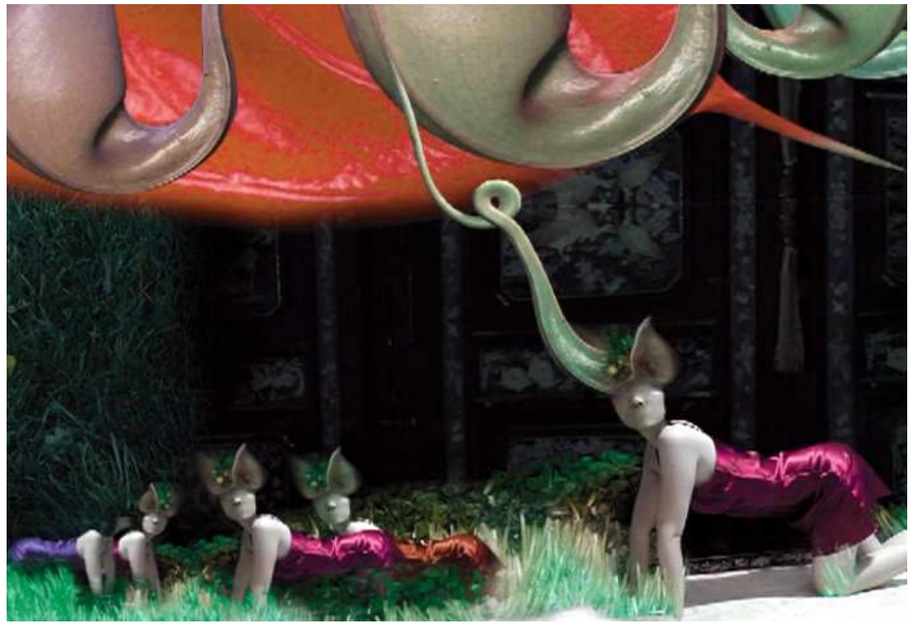
-Artist Note-

전 마침 햇빛 알러지 치료를 위해 찾아간 한 다윈 의학자의 이론을 빌어.
제 달콤한 당분이 사실은 몸에 좋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전 마침 햇빛 알러지 치료를 위해 찾아간 한 다윈 의학자의 이론을 빌어.
몸에 좋은 것은 원래 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다음과 같이 처방해줬어요.
식후 삼십분 하루 삼회 성교하세요
식후 삼십분 하루 삼회 단것을 드세요.

나는 몸에 좋은 여자에요.
맵더라도 울지 말아요.
쓰더라도 뱉지 말아요.
나는 몸에 좋은 여자에요.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농담 중–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농담 Joke that spent a lot of time and money (2006)

12 Chowoomo-nopolia

YOUN DON HWI

윤동휘, 초우모노폴리아

There is a world between image and text. The space which is both image and text, or which is neither image nor text. I will intuitively write down the "happenings" which take place there. Though I say "intuitively," the happenings in this specific world has already happened or has already been written down. Everything happens out of necessity. History is a place. The mystery of letters. I drew "What all humanity has already known," even though it cannot be translated, on books using them as medium. -Artist Note-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세계가 있다.
이미지이면서 텍스트인.또는 이미지도 텍스트도 아닌곳.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직관적으로 써(혹은 그려)나간다.직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세계의 사건들은 이미 벌어졌고, 쓰여져 있는 것이었다.모든게 필연이다. 역사는 하나의 장소.문자의 신비.번역할수 없지만 '모든 인류가 알고 있었던 것'을 책이라는 매체위에 그려보았다. -작가노트 중-

초우모노폴리아 Chowoomonopolia (2008)

13

Sf.sel-10 (2008)

Sf.Sel-10
Sf.Sel-11

KIM DOKYUN

김도균, Sf.Sel–10, Sf.Sel–11

SF series expresses the spectacle spatiality of architecture and the expanded virtual space. I think architecture is a combination of ou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action to what we see. I also think that the aesthetic elements in a photography is not an artificial decoration but an expression of some pure effect a building produces in us as it comes near us. The trend in photographic work these days is to build a model or a scene and take a picture of it, or to add photos on the photos which were already taken of certain spaces. In this series, however, I took pictures first and eliminated one by one those elements which interrupt my own idea of an ideal space. -Artist Note-

SF시리즈는 건축물의 스펙터클한 공간감과 확장되어진 가상공간을 표현한다. 건축물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각적,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인 반응의 복합체이라 생각하며 사진 속의 심미적 요소는 어떤 인공적인 치장이 아니라 건축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가하는 순수한 효과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사진의 흐름이 모형을 만들거나 연출해서 찍는 사진, 사진을 찍은 후 공간과 공간의 합성을 위주로 더해가는 작업이라면, 이 시리즈에서는 사진 찍기 전의 단계 부터 공간과 건축의 관계 연구, 재발견 등을 토대로 프레임이 형성 되고 그 이후부터는 나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절제하고 하나씩 지워나감으로써 나의 작업은 완성된다. –작가 노트 중–

Sf.sel-11 (2008)

산으로 간 펭귄
THE PENGUIN THAT GOES TO MOUNTAIN

문진욱, 붉은 악마, 새총
MOON JINWOOK, Red Devil, Slingshot

새총 Slingshot (2010)

붉은악마 Red devil (2010)

MOON JINWOOK

Red Devil

붉은악마

Red Devil has dual images. It could be evil or not. '2010 Red Devil' can mean recklessness, a leap and agitation. Those who get united because of it may become one, but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that they are just mechanically manipulated through demagogism. -Artist Note-

붉은 악마는 양면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악마이나 악하지 않을 수 도 있다. 2010붉은악마는 폭주, 도약, 선동을 의미할 수 있고 그로인해 응원하며 결집되는 이들은 하나가 되지만 선동에 의한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 노트 중–

Slingshot

새총

The ruled throw eggs as a means to rebel against the power of the ruler. Everyone has power in certain ways. That power produces another victim, that is, the ruled. Are you safe in front of an egg gun? -Artist Note-

피권력자는 권력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계란을 던진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권력을 가진다. 그 권력은 또 다른 피해자 즉 피권력자를 만든다. 당신은 계란 총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가?

–작가 노트 중–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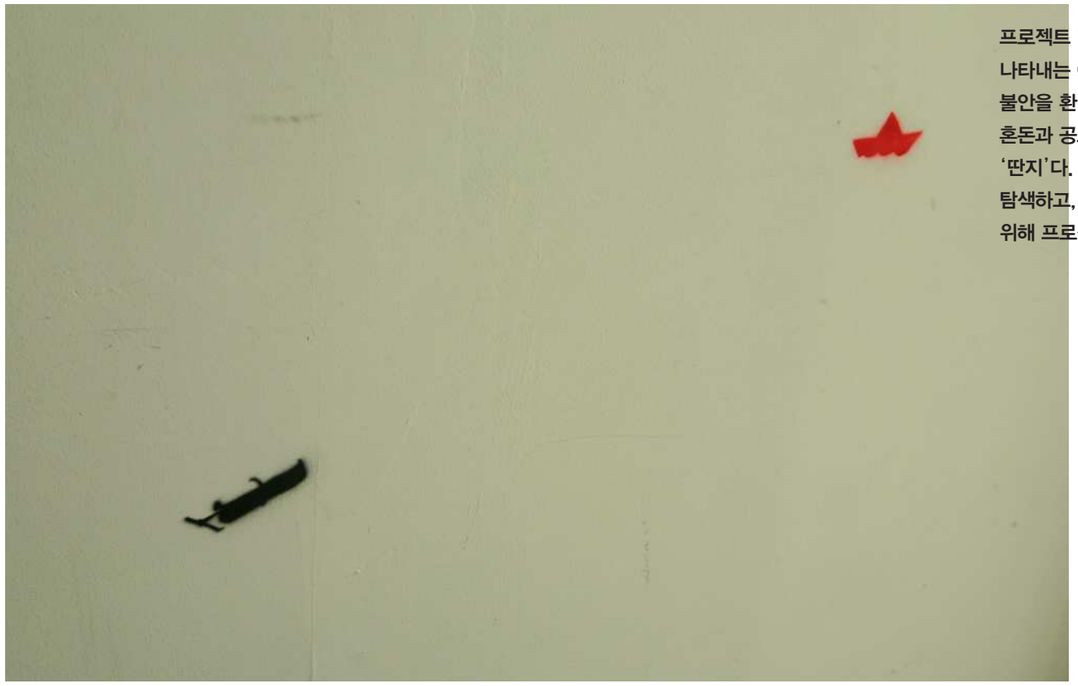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PAIK NAM JUNE ART CENTER

15 Graffiti Project - Critical Timing

KOH MINKYU

고민규, 그래피티 프로젝트–Critical Timing

Project 'Critical Timing' directly expresses the icons of political crisis, suggesting the insecurity of modern times. Each icon invites the audience to look in the face of the chaos and fear of 'now,' and 'criticizes' the present condition. This project intends to explore the space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arry out the social function of art.



프로젝트 'Critcal Timing'은 정치적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면서 현재적 불안을 환기한다. 각 도상들은 위기로 부터 시작된 혼돈과 공포의 '지금'의 직시이며, 현상에 대한 '딴지'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작가의 시선으로 탐색하고, 사회적 기능으로의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가노트 중–

그래피티 프로젝트–Critical Timing Grafitti project-Critical timing (2010)

16

조류적 곰돌이 '푸' The bird 'winnie the pooh' (2010)

The bird 'Winnie the Pooh'
RYU JINWOO

류진우, 조류적 곰돌이 '푸'

판화적 표현과 입체적 형태, 상상의 이미지(곰돌이 푸)와
실존 비행기, 표면과 뼈 이 상반된 요소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작가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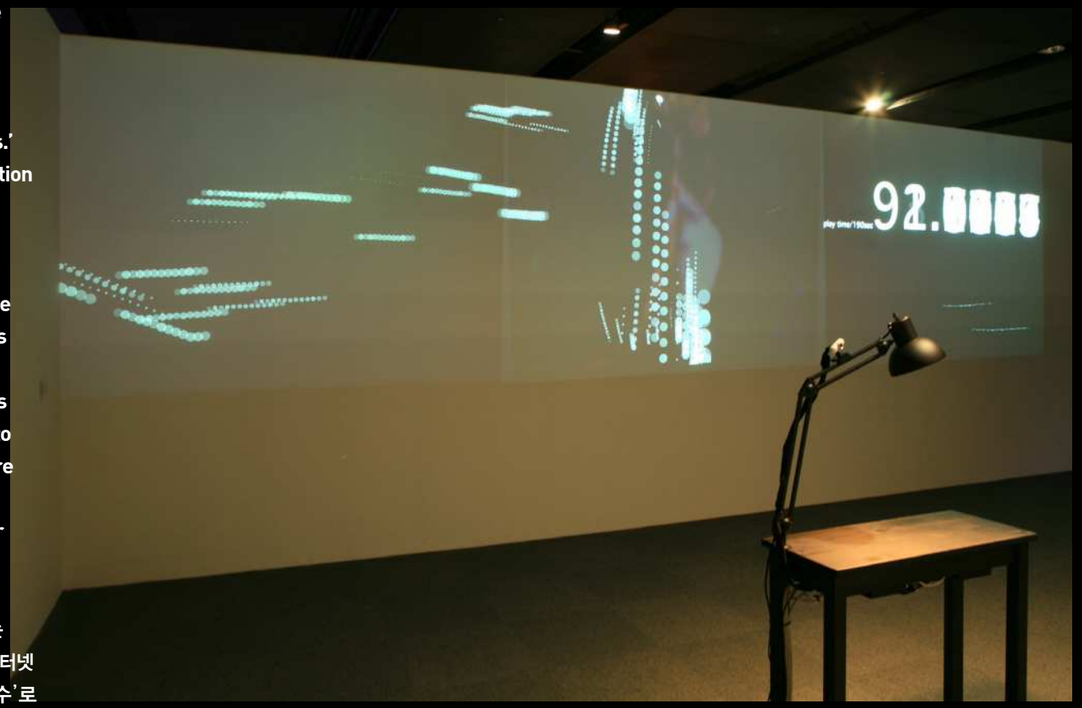
17 Uncertainty Numbers

SEO JOONGHY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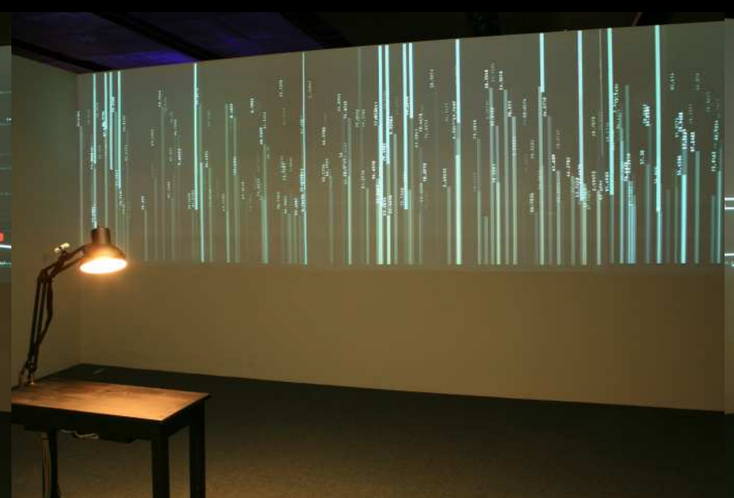
서중협, 불확실성의 숫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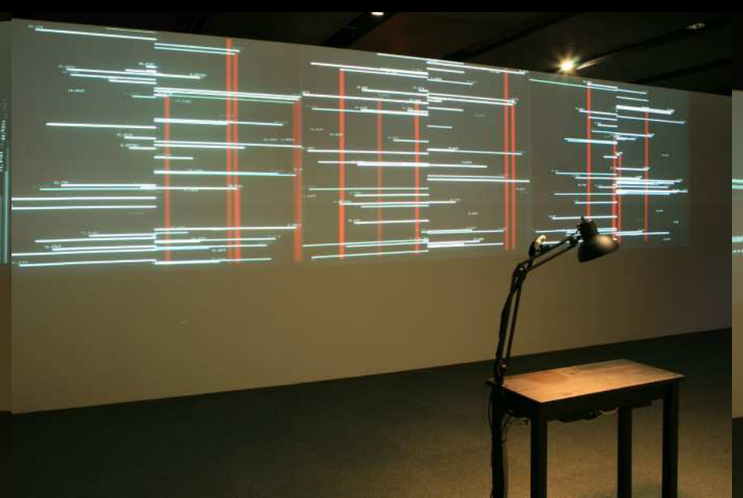
"Uncertainty Number' is a story about the imbalance of human civilization.
In media such as TV or internet,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and the measures among people are expressed in 'numbers.' 70% of language has been evolved in relation to 'numbers,' and most of human life consists of things related to 'numbers.'
The meat consumed by the 10% of those who possess great 'numbers' prevents the 14% of the lower ranks from eating grains because the cattle consume 770 tons of grains for food. All these whiles, what has the 'media message' of 'the planet' done to 'the planetarians'? Could it be that they are showing us dreams so that we believe we live in a virtual space which exists only for numbers? -Artist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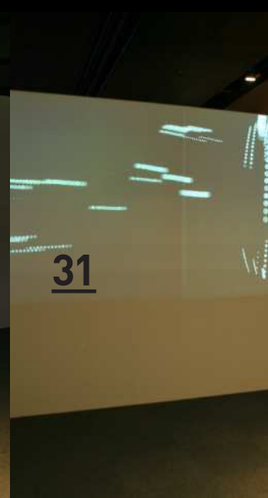
'불확실성의 숫자들(Uncertainty Numbers)'는 인간 문명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는 문명 진화와 사람간 단위도 '수'로 표현된다. 이미, 언어의 70%는 '수'와 연관되어 진화되었고, 인간 삶의 대부분은 '수'와 관련된 일로 이루어져 왔다. '수'를 많이 가진 약 10%가 섭취하는 육식은 '수'를 적게 가진 하위 14%가 곡물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동안, '그 행성'의 '미디어 메시지'는 '그 행성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오직 '수'를 위한 가상공간에 실존한다고 믿도록 꿈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작가 노트 중-



불확실성의 숫자들 Uncertaintity numbers (2010)







18 An Essay On the Visibility Of Hidden 1

SEI RHEE

가려진 채 획득된 가시성에 대한 연구 1 An Essay on the Visibility of the Hidden 1 14min 48sec (2009)

이세옥, 가려진 채 획득된 가시성에 대한 연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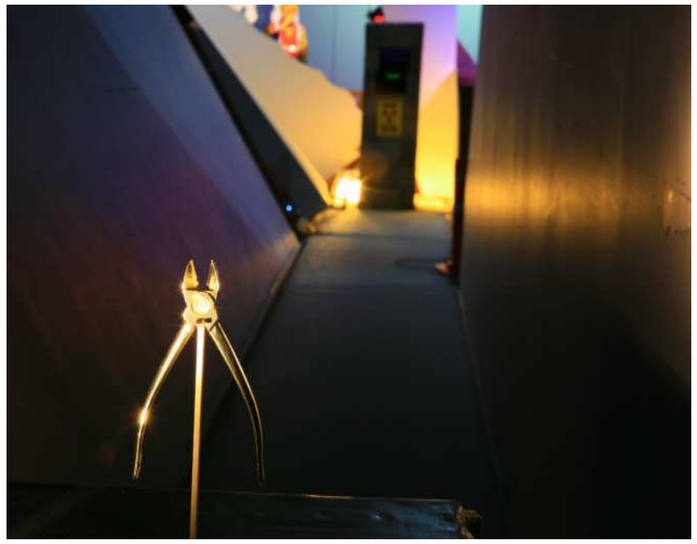
"A fragile veil, an erased mask, and a fluttering screen etc... There are some conversations among these images which built up a metaphoric montage. This is your chronicles that is depicted by the parade and patchwork of images."
Images that are constructed by overlap and its variations depict the concept of 'the visibility of the hidden.'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artistic gestures behind what is visible and what is not. As a way of looking at and understanding objects, overlap is not only an artistic technique but also an attitude to represent them. -Artist Note-

"부서지기 쉬운 베일, 손상된 마스크, 펄럭이는 스크린. 은유적 몽타주로 한 자리에 모인 이미지들의 대화. 이미지들의 퍼레이드, 이미지들의 패치워크에 의해 묘사/진술되는 당신과 당신의 역사."
시각적 형식은 예술 기법일 뿐만 아니라, 대상을 지각하고, 재현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프레임 안에 등장했으나 가려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이 영화는 가려진 채 획득되는 가시성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각종 시작만으로 이루어진 영화이다. 내가 마주한 이 펄럭이는 베일의 현전처럼,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살아 있는 당신처럼. –작가 노트 중–

memorabilia
R.I.P
R.I.P
D.I.Y. SATELLITE
STATEMENT
CUBESAT.ORG
BAD HARD
LAUNCHING
KILL SWITCH
OSSI
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
OPEN SOURCE
WWW.OPENSAT.CC
VERY KIND OPEN SOURCE™
KILL
I SAT
ART & CULTURE
cc

19

G.O.D (2009)



방사능 보석 Radiation Jewelry (2010)

G.O.D
Radiation Jew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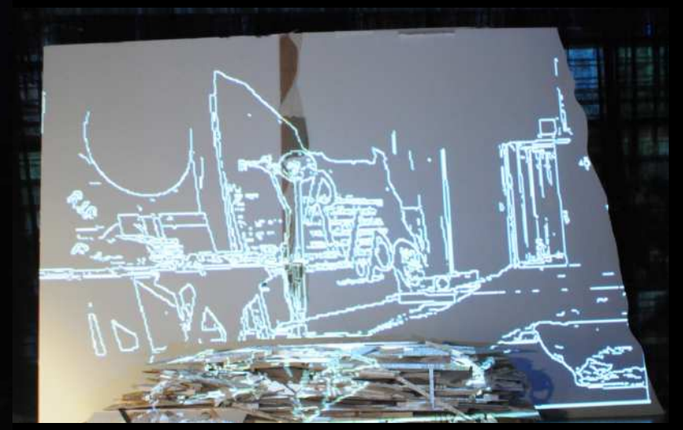
SONG HOJUN

송호준, G.O.D
방사능 보석

20 Drawing

INTER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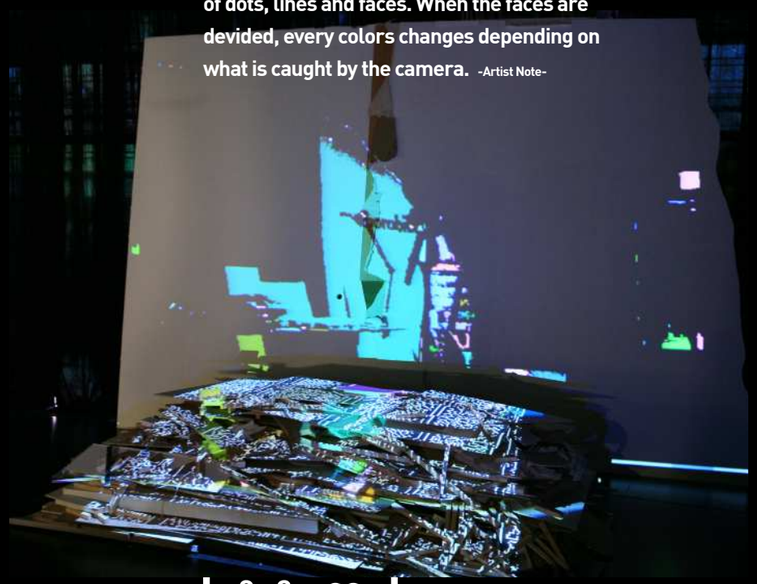
인터게이트 작품 'Drawing'은 카메라에 찍히는
일상의 사물을 그림처럼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점,선,면의 순으로 그려지며 면이 분할될때마다
채색이 바뀌어 카메라에 무엇이 잡히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르게 채색됩니다. –작가 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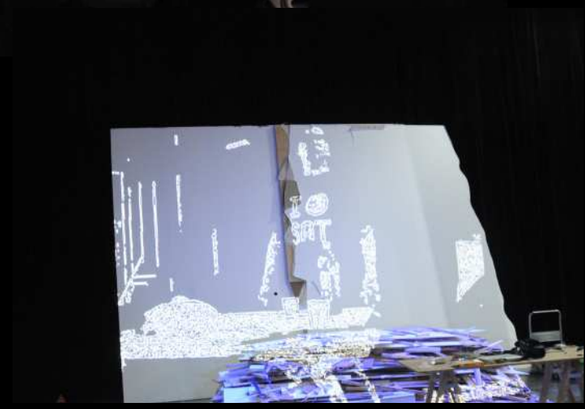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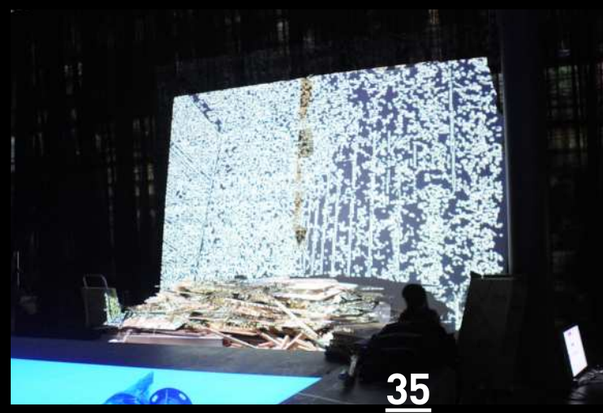
드로잉 Drawing (2010)

인터게이트, 드로잉

The work 'Drawing' is transforming daily objects taken by camera into picturesque scenes. The drawings are made in the order of dots, lines and faces. When the faces are devided, every colors changes depending on what is caught by the camera. -Artist Note-







21 PARK SEUNGWON

박승원, 무제
파티의 추억
이륙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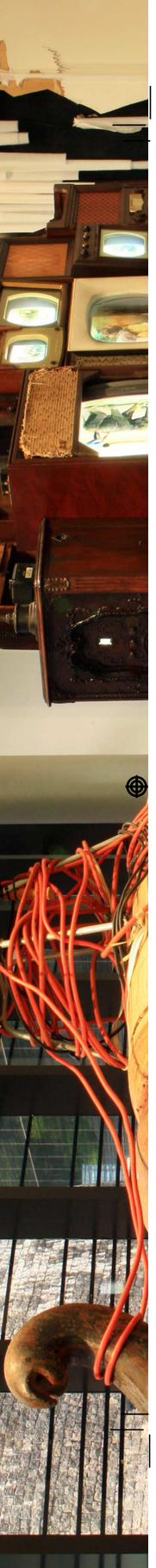
Untitle
The Memory of a Party
Fly up
Massage

The memory of a party (2009)

Fly up (2009)

Massage (2009)

Yellow PERIL!
c'est moi
N. J. PAIK
달려라!
창기스칸이 남긴 대법령



22

Let's go!
Let's go with Post-eat!
馬P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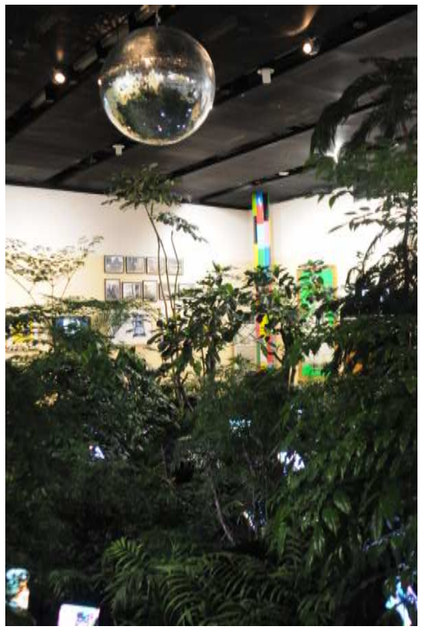
We Made Love under the Spinning Disco-ball Sun

Now we are adjusting space. PHAK!

Please don't walk on the grass. It's growing! PHAK!

Crap! Retreat! Retreat! PHAKHU PHAKHU!

POST-EAT



폿팉, 가자! 폿팃과 함께! 馬빡
돌고도는 미러볼 태양아래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지
지금은 공간 조정 시간입니다. 빡!
지금은 잔디 양생중. 빡!
아씨 빠꾸빠꾸!

Our interpretations and gestures lead to the amplification of established context and finally result in totally different way... However all the members have different view point. we are doing each works seeking fun in own's point. The birth of unified but bold ideas are the starting point of our real work and it shows central direction. Such bond of sympath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as power which is connected to not only us but also people who experience the work. -Artist Note-

우리의 해석과 제스츄어는 기존의 맥락을 더욱 증폭시키거나 전위시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맥락이나 작업을 바라보는 멤버들의 시각이 다 다르다. 각자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맥락에 대한 공통되고 엉뚱한 해석의 탄생은 우리들의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며, 결과물로 나아가는 노정에서 중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감대는 우리들 뿐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작가 노트 중–

23 Untitled Untitled PARK AD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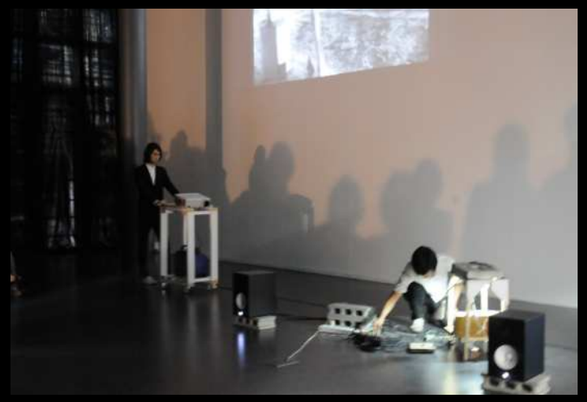
박애정, 무제
무제

무제 Untitle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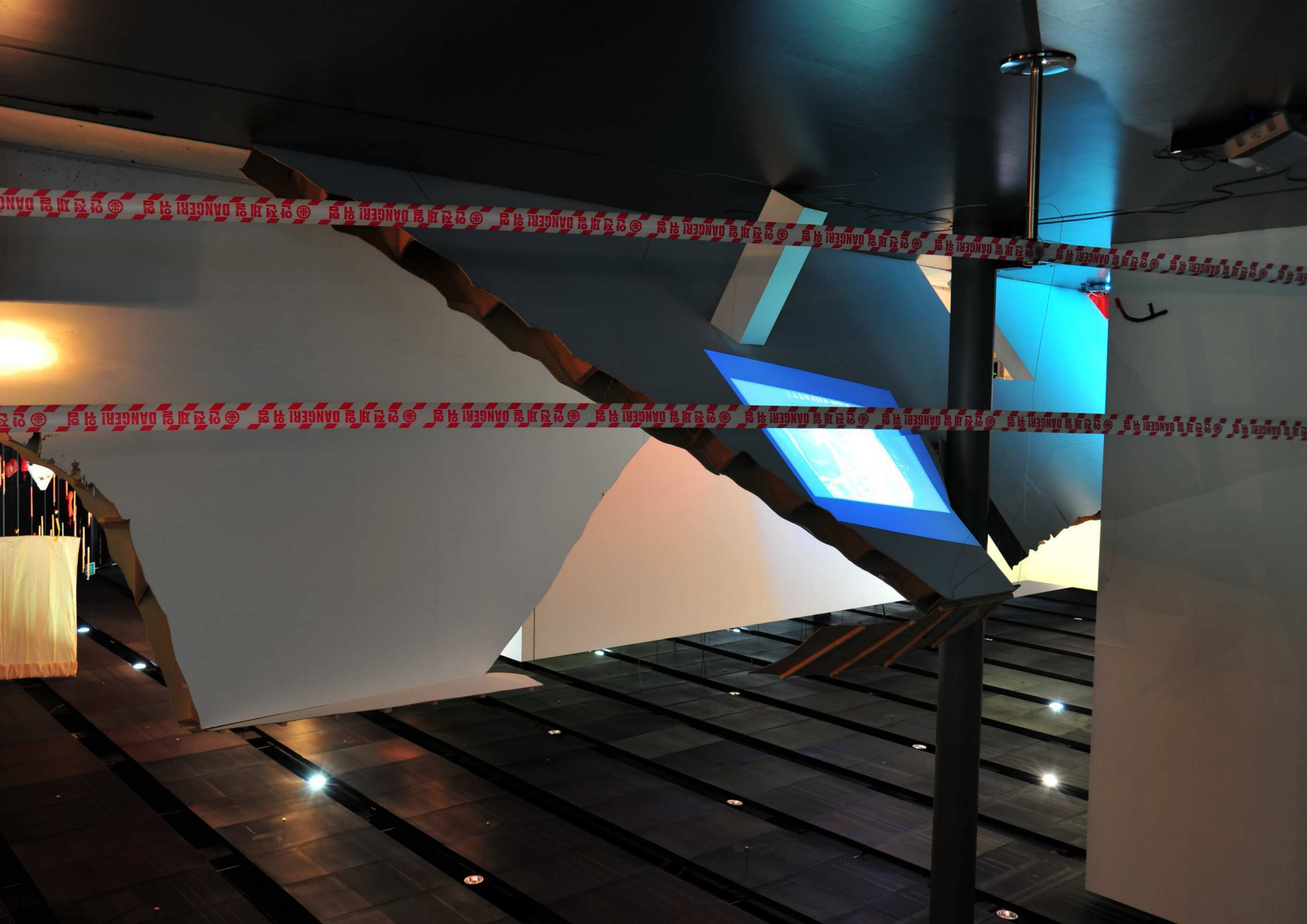
무제 Untitled (2009)

Opening Performance

베모 Vaemo



송호준 Song hojun


DANGER! 위험

Artists CV

작가이력

MOON MOOWANG

Born in 1984

SOLO EXHIBITION

2010 Lyrical Playground, Total Museum,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 searching Direction, KNUA's Old restaurent, Seoul

2008 The Strange Flight, Gallery Artbit, Seoul
Not scared. But, so to speak, scared, Gallery 175, Seoul

2009 Seokyo 60 ; The Game for Respect, Sang sang madang, Seoul
DPI, Art space without boarder, Paris
transformation : Prada transformer, Kyung hee Palace, Seoul

2010 Coming Out ; The Truly Location, Bo-Ahn motel, Seoul

LEE JIHOI

Born in 1984, http://jihoilee.com

SOLO EXHIBITION

2010 Jihoi Lee: Tetragon in Motion, The Stables Gallery, Brent Arts Council, Lond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Short film night: The Liberation War Museum, Departure, London
Off Modern, Corsica Studio, London
Other Asias: Current 1 - Information, Nolias Gallery, London

2009 Black River Festival, Vienna
XRAY, The Perseverance, London
Headlines, Magazzini del sale, Venice, Italy

2010 Frieze Art Fair, Resovision by Resonance FM, London
XRAY:artcarousel, Galleri 54, Gothenburg, Sweden
Rich Disorganisation,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Supermarket Art Fair, Stockholm, Sweden
Ozlem, Curated by The Eternal Tango, London
The Chimney Cinema lauch, London

HUH SUBIN

Born in 1975

SOLO EXHIBITION

2007 Light of Artificial and Light of Natural, Berilner Promenade, Saarbruecken, Germany

2008 Stories of light, Artspace HUT, Seoul

2009 Developmentshow, Kunstdoc Projectspac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 Le Carreau, Le Carreau, Forbach, France
the produce window, K4 Gallery, Saarbruecken, Germany

2008 92.355, Seed Gallery, Suwon, Korea
Islands Rhapsody, Gallery Light, Seoul

2009 Wonder Lens¨ Gallery DOOR, Seoul
Science and ART 2009 Light, Objet of artist, National Science Museum, Daejeon, Korea
Savor KukminilboGallery Seoul, Korea
BlueDot ASIA 2009, Seoul Arts Center, Seoul
A method for take a moments, KTgallery, Seoul
Dacumeta Norim, Moro Gallery, Seoul

JUNG JAECHUL

Born in 1959

SELECTED SOLO EXHIBITION

1992 1st Private Exhibition, Korea Culture & art Foundation, Seoul

1994 2nd private Exhibition, Gallery de seoul, Seoul

1996 3rd private Exhibition, Total museum, Jang-heung, Korea

1997 4th private Exhibition, Gallery Headmill, vermont, US

1998 5th private Exhibition, Gallery Wonseo, Seoul

2000 6th private Exhibition, Gallery Elen Kim Murphy, Seoul

Vaemo(BAE KYUNGMO)

Born in 1979, www.vaemo.kr

SOLO EXHIBITION

2008 Saving, Independent Plan

2010 VAEMO.KR, Independent Pl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Out Sound Performance, Independent Plan

2009 Other town boys : VS Ma-pil, Independent Plan
White Hertz Performance, Independent Plan

SON MONGJU

Born in 1978

SOLO EXHIBITION

2007 Come in, Space Bandee, Busan, Korea
I'm not ready, Gallery Hyun, Seoul

2009 Departure, Hanseal Gallery, Busa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Open studio of Bastil, show, France
Seoul living design fair, BANG & OLUFSEN, COEX, Seoul

2009 Pumping Heart New Form, MK2 Gallery, Beijing
Wizard of OZ, Shinsagae Gallery , Busan, Seoul
Artist garden, Clayarch Museum, Kimhae, Korea

2010 Hyun-Dai motor Sonata launching show,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MOON SOHYU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Christmas Objet, Posco Art Museum, Seoul

2008 Zagreb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student panorama), Zagreb, Croatia

2009 Managing utopia, 175 gallery, Seoul
suggestive Moments, pace HaaM, Seoul
connec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31st Festival of 3 Continents of Nantes, Nantes, France

KIM KIMOON

Born in 1979, www.noomik.egloos.net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Korean Letter Union<Han-ul 8.0>, Gallery MokKumTo, Seoul

2009 9Rid '37*33'N x 126*59'E Nine Seoul, Daily Project, Seoul
Flat plan, Art Sunjae, Seoul
transformation : Prada transformer, Kyung hee Palace, Seoul
The Book Society, Gallery D+, Seoul

2010 Graphic Exhibition : 2009 Annual Report "BILINGUAL", The Gallery, Seoul
Seokyo 60 ; imaginary Archive, Sang sang madang, Seoul

AHN MANO

Born in 1982

EXHIBITION / SCREENING

2007 Ex-is, Nominated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Experimental Film Festival in Seoul

2008 Ornament and Design Process, Eikones in Basel, Switzerland
Scann Project, Space Cell in Seoul, Korea
Image & Sound, Kunst Doc in Seoul, Korea

2010 11root2, Aa Design Museum in Seoul
'Lee Sang' han Book, Seokyo Arts Experiment Center in Seoul
Ex-is, Nominated for Korean Competition, Experimental Film Festival in Seoul

AWARDS

2007 Winner of :Output10, International Award for Student in Design, the Netherlands

JO EUNPIL

Born in 1979

SOLO EXHIBITION

2002 Making my territory ,Dong-rae Art center, Busan, Korea

2009 Blue Obsession,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0 Blue Obsession as a Drawing, Shin-sae-gye Gallery Window,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THE ONE SQUARE, Canary Wharf, UK
Degree Show,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2010 The sweets and the bitters, Busan Univ Art Center, Busan, Korea

DDAN-YOE-JA (YOO JINHEE)

Born in 1980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1 Impossible Medias, Ssamzie space, Seoul

2007 The Trick of Opera, Visua & music charge, Arco Grand Theater, Seoul
Revolving Sasimi, Compose & Concept charge, KNUA Grand Theater, Seoul
Drama Brodcasting Station 2.0, Gallery Loof, Seoul

KIM DOKYUN

Born in 1973

SOLO EXHIBITION

2006 SF, One and J Gallery, Seoul
Images of Speed, Seomi and Tuus, Seoul

2008 New SF, Gallery2, Seoul

2009 KDK, Goozee gallery, Daegu

2010 Flowingscape, Nanji Art Studio, Nanji gallery, Seoul
Line up, gallery2,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Photo on Photograph, Kumho Museum of Art, Seoul
DAKS, Making History, Sungkok Museum, Seoul

2009 No...,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2009
Double Fantasy,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rugame, Japan

2010 Edition : The expanded Genre, Interalia, Seoul
Memoir of a place, Revivng the Memories, GongganSarang, Seoul

MOON JINWOOK

Born in 1981

SOLO EXHIBITION

'Defensive', Alternative Space Bandee, Busan,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Presents set Opening, Gallery Jamiwon, Busan, Korea
Guerilla Performance, Busan Station Square, Busan, Korea
BOX IN BUSANSTATION – 'Gap' Exhibition, Busan train station, Busan, Korea

2007 P-set 'more & more' exhibition, Art space Mindllae, Busan, Korea
Busan Biennale imposible of waste, Space Bandee, Busan, Korea

2010 Fantastic Garden, Su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KOH MINKYU

Born in 1981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0 Class of 2010, Gallery Hyundai, Seoul
Dongbangyogoi 2010, Doosan Gallery, Seoul

2009 Law and affirmation, Honenin, Kyoto, Japan
Boundary - Filling and emptying, History Museum of Bupyung, Inchun, Korea

2007 Wind from east, (Kaarst City hall Gallery, Germany)

SONG HOJUN

SOLO EXHIBITION

2008 Peace+Love, Gallery 3story view&Hue
!:enlighten me, Gallery Templ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World Light Expo, Ilsan, korea

2006 After 10 Tears, Ghana Art Center, Seoul
Daydream, Gallery Alt, Seoul
Fumsters, Seoul Art Center, Seoul

2007 Double Click, Jebiwool Art Center, Gwacheon, Korea

2009 Open the source, Total Art Museum, Seoul

INTER GATE

Organized in 2006

SELECTED PERFORMANCES

2006 The Story of a Girl 1, KNUA Art Theatre, Seoul

2007 The Story of a Girl 2 -The Dream, KNUA Art Theatre, Seoul

2009 The Second World, Uijeongbu Arts Center, Seoul
Full Mo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Nine Coffee & Egon Schiele, Guro Arts Valley, Seoul
Opera ji gui, Seoul Arts Center, Seoul
Singing ball, Saii, Seoul
Inter gate interaction, TPM, Japan
X meet Y, Sanwoollim Theatre, Seoul
Spring Snow, Wooriarthall, Seoul
Good night(好夜), Guro Arts Valley, Seoul

RYU JINWOO

Born in 1983

SOLO EXHIBITION

2010 Pour Out My Past, Space Bandee, Busa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Checking Homeworks, Gallery U ,Busan, Korea
Boys be patients!, Soul Art Space ,Busan, Korea

2010 Odyssey 2010, Space Bandee, Busan, Korea
Busan Biennale, Now Asian Artist, Busan cultural canter, Busan, Korea

SEI RHEE

www.seirhee.co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Say-ok LEE AND Kim Sookhyun+Kwak Eonyoung, 8th New Media Festival
Gallery GGoom, Seoul
Cinema Digital Seoul, CGV Apgujeong, Seoul

2009 Meta-data, Guro Art Valley, Seoul
Expe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Ex-Choice", Cinematheque Seoul, Seoul
Visual Performance at Grand Mint Festival 2009, Olympic Sports Center, Seoul
Marking Time,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PARK SEUNGWON

Born in 1980, www.seungwonpark.co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Pilze und Bananen, Gallery SKAM, Hamburg, Germany
My Favourite Tune, Gallery LINDA, Hamburg, Germany

2010 Digifesta 2010 Media Art Festival, Gallery of The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No Soul For Sale, A Festival of Independents, Tate Modern, London
Move on Asia 2010, Para, Site Art Space, Hong Kong
Kyo-Cha-Ro/ Kreuzung, Gallery Westwerk, Hamburg, Germany
Around the World in 80 Hours, Gallery LOOP, Seoul

POST-EAT

organized in 2008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0th Exhibiion, A&D Gallery, Hansung Univ, Seoul
Play hospitals, melon AX, Seoul
21century toilet paper theory, Art 'n Dream Gallery, Seoul
Space Rent Project, Insa art spac, Seoul
Beyond Art Festival 2008, zero one design center, Seoul

PARK AD JONG

Born in 1959

SOLO EXHIBITION

1985 Invitation Exhibition, France culture Centre, Seoul

1987 Invitation Exhibition, Peter Borough Gallery, Detroit, US

1989 Invitation Exhibition, Pontiac Art Center, Michigan, US
Michigan Fine Art Competition Special Prize
Robert Mallony Creative Artist Prize

1991 Invitation Exhibition, Gallery Bing, Seoul
Ploc-Krazner Foundation Special Prize

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
Nam June Paik Art Center
5 June 2010 - August 22

Editor	Sooyoung Lee, Sohye Lee
Publisher	Youngbin Kwon
Design	Kimoon Kim
Translation	Insoo Lee
Photo	Jewook Kang
Published by	Nam June Pak Art Center
Published on	20. October 2010
기획	이수영, 이소혜
발행인	권영빈
디자인	박상애
번역	이기준
사진	강제욱
발행처	백남준아트센터
발행일	10. 20. 2010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백남준로 10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Sanggal-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905 Korea
T. +82 (0)31 201 8500
F. +82 (0)31 201 8530
E. info@njpartcenter.kr
www.njpartcenter.kr

본 카탈로그의 저작권은 백남준아트센터와 저자들, 작가들에게 있습니다.
©2010 Nam June Paik Art Center, artists, authors. All right reserved.

NAM JUNE PAIK ART CENTER
백남준아트센터